2011.06.15 NO.113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전관예우는 가고 공정사회는 오고 P21~37

에너지 절약 습관 지키면 나라 경제도 지킨다 P10~11

새 국민여동생 손연재 "얼굴 아닌 실력으로 승부" P12~13

저탄소 생활실천 그린에너지패밀리 www.gogef.kr

올여름 전기절약 온국민 다함께 팍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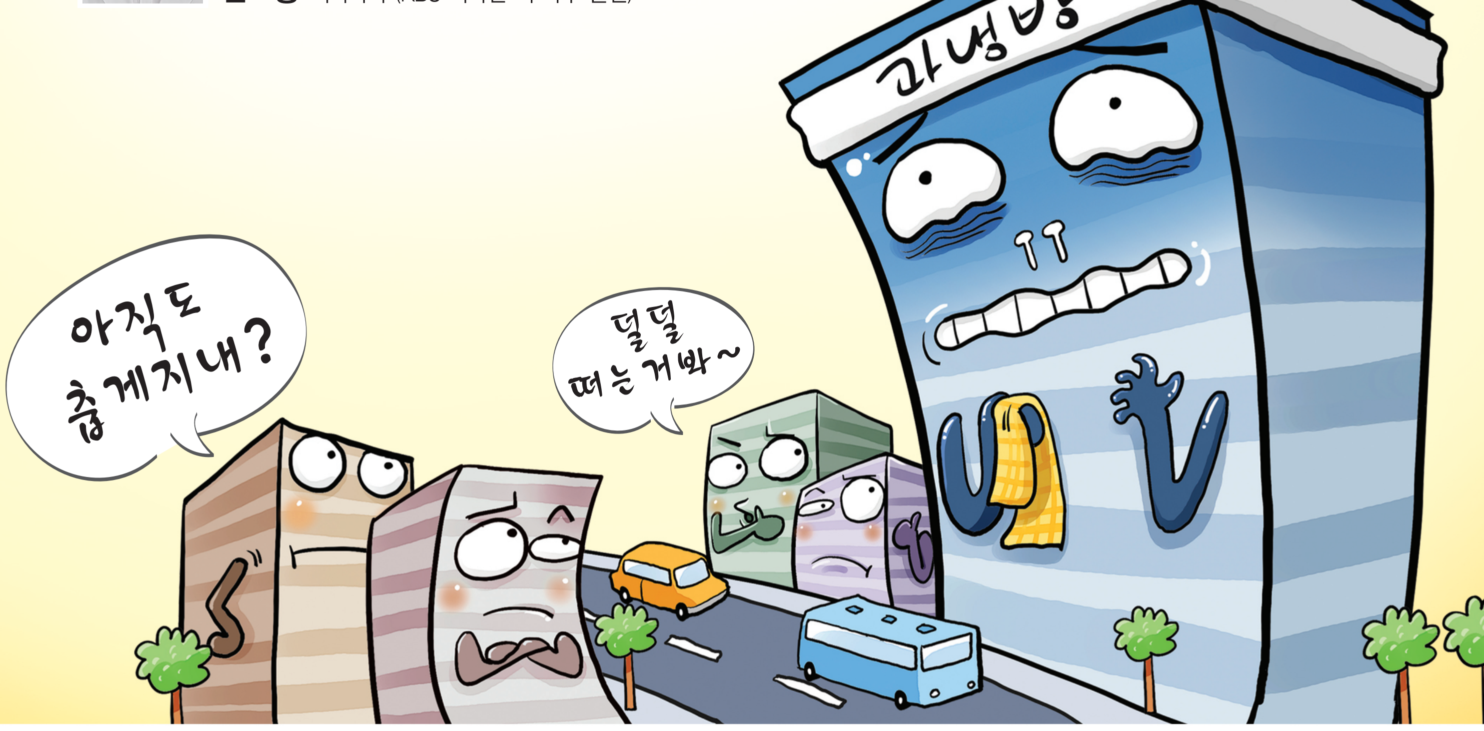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1. 실내 **건강온도 26℃ 이상** 지키기
   (권장온도: 공공28℃/ 일반 26℃ /판매시설 • 공항25℃ 이상)
2. **낮 2시 ~ 3시**에는 **에어컨 사용 자제**하기
   특히! 낮 3시 전후엔 **에어컨 10분 끄기**
3. 점심 시간 및 외출 시에는 **조명등 끄기**



"실내외 온도차가 5℃이상 차이가 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비염, 폐렴 등 '냉방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강온도 26℃를 지켜주세요."

권오중 의학박사 (KBS 비타민 외 다수 출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공직 청렴이 공정사회의 발판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사회일 것이다. 공정사회를 만드는 견인차로서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청렴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0년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백78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선진국 기준이 7점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층의 부패가 중·하위직의 생계형 부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는 검찰 스폰서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공직사회의 부패가 해당 사건 관련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국가 전반적인 불신을 야기해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더욱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금지하는 행위제한 제도, 취업심사 제도를 퇴직 전 근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경력세탁 등을 막고자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를 확보하는 데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즘 최대 화두는 공정사회다. 공직자의 부패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야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은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 그러므로 청렴이 시스템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고위직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고위층일수록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청렴이 곧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비리는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부패친화적인 연고주의를 매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특히 중앙보다 지역사회에 강력한 부패문화 개선운동이 있어야 한다. 연고주의가 공직 인사나 정책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비리나 부조리가 만연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성 확보를 위한 반부패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일선 현장을 보면 중·하위직 공무원에 비해 고위직은 청렴교육 시간이 적다. 청렴이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고위직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을 준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 공정사회 구현의 발판임을 명심해야 한다. G

Contents

NO.113 2011.06.15 통권 214호



기획특집

전관예우 No! 봉사·재능기부로 제2의 삶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는 복지부동과 철밥통,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공정사회는 양립할 수 없다. 사회가 외치고 정부가 응답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퇴직 후 바람직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현직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복으로, 퇴직 후에는 경험 많고 소명감 강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엔진으로서의 공직자, 더 이상 꿈으로 남겨둘 일이 아니다.



표지 이야기 웃는 모습이 예쁘다. '새로운 국민 여동생'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다. 그의 예쁜 미소 뒤에는 세계 정상급 체조선수가 되기 위한 지독한 노력이 숨어 있다. 내년 런던올림픽에서 더 예쁜 미소를 짓기 위해서다. 사진 · 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6.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06


14


52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6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앞으로도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시켜야

"중점기획 '한국의 바뀐 노사문화, 외국이 먼저 안다'를 읽고 노사관계가 잘된 나라는 흥하고 잘못된 나라는 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됐습니다. 상생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택해야 하리라 봅니다. 노사문화가 발전된 만큼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우도형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전관예우는 반드시 척결해야

"이슈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에 가장 배치' 기사를 통해 정부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같이 청년 취업도 힘들 때, 현직에서 좋은 자리에 있던 공직자들이 퇴임 후에도 상당한 예우를 받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의식으로 당연히 배제돼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배도순 (부산시 북구 용수로)

트위터로 소통… 국민이 바라던 공무원의 상!

"공무원 하면 약간 고리타분하면서도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위터도 날리고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소통하는 서태옥·전하억 사무관과 임해성 주무관을 보면서 시대에 따라 공무원의 위상(位相)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줄 아는 공무원이야말로 오늘날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동진 (광주시 서구 양동)

옥상농원의 채소 보니 기분까지 싱그러워

"포토 '상추 따러 옥상 간다'는 여름날 콘크리트 숲 도시의 삭막함에 청량제를 제공해 준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공간으로 버려진 도시의 옥상에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텃밭을 꾸며 시민에게 분양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네요. 건물옥상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 등이 자라는 모습이 참 싱그럽네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기보다 옥상과 같이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G20세대 이야기 보며 도전정신 배워

"G20세대 안시준씨의 세계여행 기사는 20대인 저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가르쳐줬습니다. 안시준씨의 무일푼으로 시작한 세계일주,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 세계인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도전하는 G20세대의 모습은 저 같은 20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세상을 향한 발판으로 삼은 안시준씨를 보고 있노라면 내일부터라도 어떠한 도전이라도 미소를 띠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G20세대 청년들 파이팅!!"

박혜선 (전남 목포시 보광동)

독자엽서 당첨자

독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지난 5월 한 달간 독자엽서를 통해 독자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앞으로 기획과 편집·디자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독자께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춘원·대전시 서구 둔산2동 **김경욱**·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김옥주**·경남 양산시 삼호동 **김응창**·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김태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김현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남성진**·충북 제천시 의림동 **박경화**·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박미자**·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박복심**·전남 순천시 인제동 **박성욱**·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변미희**·인천시 서구 가좌2동 **서삼영**·경북 상주시 공성면 **서순영**·부산시 해운대구 반송3동 **손혜원**·전남 나주시 교동 **심동호**·충남 태안군 근흥면 **오성희**·제주시 이도1동 **오태훈**·전북 남원시 하정동 **이경철**·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지영**·전북 익산시 모현동 **이문영**·경북 경산시 하양읍 **이상남**·대전시 중구 오류동 **임송이**·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임월성**·울산시 남구 옥동 **장석호**·광주시 북구 동림동 **채남균**·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최영술**·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최유선**·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최청아**·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허선숙**·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알립니다

‘호국보훈’ 사진 공모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보훈 50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가 보훈을 소재로 한 미발표 사진이다. 입상작은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희귀 사진과 함께 오는 7~8월에 열릴 전국 순회 사진전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 기간 | 6월 26일까지
공모 내용 | 호국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을 통한 국민화합과 희망찬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보훈 사진
응모 방법 | 공모전 카페(http://cafe.naver.com/bohunphoto)에서 응모
결과 발표 | 6월 30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공모전 카페
지원 혜택 | 국가보훈처장상 외 총상금 9백만원
보훈50년 사진공모전 사무국 ☎ 070-4100-0452

출판문화 유공자를 추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도 ‘제25회 책의 날’을 기념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의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유공자는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출판 분야 경영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가 그 대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출판 관련 단체나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기간 | 6월 30일까지
포상 내역 | 문화훈장 1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4명, 장관표창 20명
시상 예정 | 10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추천 방법 | 제출서류를 우편과 이메일로 함께 제출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접 수 처 | (110-360)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blue0527@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www.mcst.go.kr ☎ 02-3704-9636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2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는 성질. “OOO을 유지하다.”
3. 구(球)의 절반. 구를 두 개가 되게 잘랐을 때의 한쪽 부분.
4. 모를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 ‘OOO 일손돕기.’
6.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절기는? 올해는 6월 22일.
8.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며 올바름. ‘OO사회를 실현하다.’

세 로

1. 태양에서 세번째로 가까운 행성. 달. 자전과 공전. 물과 산소. 온난화 몸살…, 나는 누구일까요?
2. 자신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노래, 동물, 기계 등의 소리를 흉내 내죠.
3. 절반쯤이 지면 아래로 파고 들어가 있는 공간. ‘OOO 주택에 살다.’
5. 남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내놓음. “요즘은 재능 OO도 많이 한다죠?”
7.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한다는 뜻의 어휘. ‘OOO 미사일.’

〈Weekly 공감〉 111호(6월 1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선수 **4**통신사 **6**유망주 **7**기지 **8**폭침
세로 **1**환수 **2**개통 **3**선두주자 **5**사유지 **7**기침

〈Weekly 공감〉 111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민 ·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남아경 · 전남 여수시 종화동
박천호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임은정 · 인천시 남구 주안동
정현아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사회적기업 '쑥쑥' 나라 경제 '튼튼'

국민경제대책회의, 투자펀드서 상시보증 등 활성화 방안 발표

일자리와 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자립경영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및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의 내실을 다질 제도개선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갈 방안들이 포함됐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SK그룹은 지난 5월 13일 비영리 민간재단 '행복한 도서관재단'을 설립했다. '행복한 도서관재단'은 아파트 단지 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 SK행복나눔재단에서 15억원을 투자하고 경기도가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순회 사서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안으로 군포, 용인, 의정부 등 경기도내 3개 시범사업 지역 중 총 37개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2 지난 1월 20일 서울 강북구 수유1동 한빛맹학교에서 열린 한빛예술단 제4회 공개오디션. 이날 오디션에서는 시각장애인 33명 등 총 38명이 합격해 한빛예술단에서 직업인으로 음악 활동을 펼치게 됐다. 장애인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는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 전문음악인을 육성하고자 2003년 시각장애인연주단으로 출발했으며, 201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기공연을 하고,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수익을 내며 공연을 듣는 이들에게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사회적기업 한빛예술단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및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나온 것은 최근 행복한 도서관재단이나 한빛예술단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급증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확산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올 6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5백32개(예비 사회적기업은 1천5개)다. 이는 2007년의 60개(예비 사회적기업은 3백96개)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이 보고된 이후 크게 증가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살려 가며 지원대책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들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선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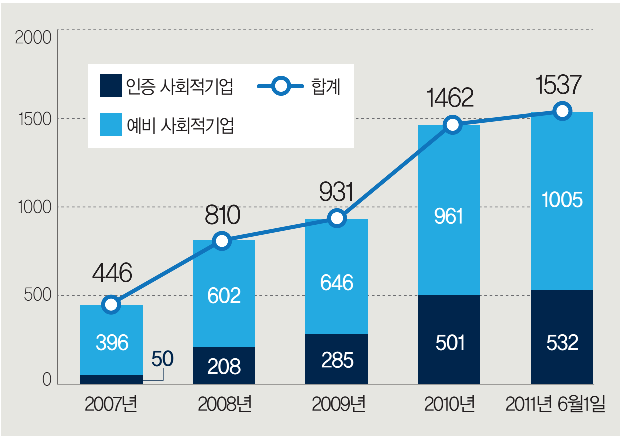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이 6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사회적기업 한빛예술단을 방문, 타악연습실에서 시각장애인 연주자 전경호씨와 마림바 연주를 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해 시장 조성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기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적 기업이) 국민에게 인식이 잘되고 결과가 좋아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지원이) 줄어들면 존속이 안 되고, 또 지원받아서

사회적기업 수 증가 (단위: 개)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추진 과제		일정
자금조달 경로 확충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융자 규모 확대	2011년 2/4분기
	희망드림론 지원 대상에 사회적 기업 포함	
	재정·민간자본 결합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운용	2011년 4/4분기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공공시장 진출 확대	자치단체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 부여	2011년 2/4분기
	우선구매 우수사례 전파	2011년 3/4분기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	2011년 4/4분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시장 조성	
	사회적기업의 바우처시장 진출 지원	2012년 1/4분기
경영·창업 지원 강화	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촉진	2011년 3/4분기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상·분야·업종별 전문교육과정개발·운영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청년벤처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11년 4/4분기
	국·공유 불용품의 사회적기업 양여근거 마련	
투명성·책임성 강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2011년 4/4분기
	자율 경영공시제도 시행	
	인증요건 충족 여부의 주기적 재검토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실시	2012년

출처 고용노동부

끼리끼리 하다가 비리가 생기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날 한빛예술단을 찾은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한빛예술단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단원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자금조달 경로확충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중 핵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2010년 1백25억원에서 올해 2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3백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한다.

공공기관 진출확대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경영·창업지원 강화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대상·분야·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한다.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원제도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20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이 함께 사회적기업을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나눔국민운동 홍보대사로 선정된 가수 김장훈, 개그맨 윤형빈, 아이돌 그룹 '포미닛'(왼쪽부터).

나눔의 기쁨을 전국민과 함께합니다

2백여 단체 참여 '나눔국민운동' 6월 14일 출범… 16일엔 국제나눔컨퍼런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중심의 나눔국민운동이 추진된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위해서다. 나눔국민운동에는 경제·종교·시민단체·언론문화·모금 및 복지사업 등 2백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최근 일본 대지진 관련 모금,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의 1백억 재산기부 및 재단 설립, 원로배우 신영균씨의 5백억 기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공연·강의 등 각종 재능 나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눔을 더욱 확산하고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나눔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나눔에 대한 관심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하여 경제·종교·시민단체·언론문화·모금 및 복지사업 등 2백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나눔국민운동이 출범한다.

나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은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경제계, 종교계, 모금 및 복지사업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문화계 등 사회 각계 기관·단체 및 정부인사, 홍보대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이어 6월 16일에는 국내외 나눔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1회 국제나눔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지역연계 행사, 어린이 캠프 등 생활 속 국민참여 나눔프로그램(6월~)과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10월) 등 다양한 나눔문화 확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장훈 등 '나눔홀씨 1호'로 위촉돼 홍보대사 활동

한편, 나눔국민운동 출범식에서는 김장훈, 윤형빈, 티아라, 비스트, 포미닛, 박재범이 나눔국민운동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들은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나눔홀씨 1호'로 위촉되어 나눔국민운동의 전도사이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제나눔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팝페라가수 임형주(왼쪽)와 탤런트 권오중.

가수 김장훈은 대한민국 대표 기부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재치있는 입담으로 방송계를 활발히 누비고 있는 개그맨 윤형빈, 폭넓은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티아라', '비스트', '포미닛', 그리고 얼마전 첫 솔로앨범을 발표한 가수 박재범 등 '나눔홀씨 1호'로 선정될 나눔 홍보대사들은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친숙하게 나눔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눔국민운동 온라인 소통을 위한 나눔 홈페이지(nanum.nate.com)도 오픈했다. 현재 나눔 홈페이지에서는 나눔국민운동의 출범을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나눔국민운동 슬로건 및 응원메시지 공모전'이 지난 5월 25일 시작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4일 마감한다.

6월 1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나눔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와 KBS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삼성,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롯데, 포스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국내외 유명 모금·봉사단체 등 나눔 관련 저명인사와 국내외 나눔 전문가,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하게 될 국제나눔컨퍼런스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며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팝페라가수 임형주씨와 탤런트 권오중씨 등이 참여, 나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제나눔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운영된다. 제1세션은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국내외 흐름'에 대해 미국 공동모금회(United Way) 브라이언 갤러거 회장과 강철희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나눔 홈페이지에서 슬로건·응원메시지 공모전

그리고 제2세션은 '다양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에 대해 미국 '멘토링 유에스에이(Mentoring USA)'의 스티븐 파월 회장과 정무성 숭실대 교수가, 마지막으로 제3세션은 '나눔 기관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미국 '가이드스타(Guide Star)'의 데브라 스나이더 부회장과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아울러 세션별 발제에 이어 해당 나눔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나눔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일반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국제나눔컨퍼런스를 통해 기부·나눔 문화 변화기조 공유는 물론 일상 생활 속 쉬운 나눔, 나눔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나눔기관의 신뢰성 및 나눔활동의 투명성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 ☎02-2023-8153, 나눔 홈페이지 nanum.nate.com

건강 온도 26도 지키고… 대낮에는 에어컨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쿨한 당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은 덥고 습한 날씨가 예년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고 열대야도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냉방을 하다가는 과다한 전기요금은 물론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 더 건강하고 알뜰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사용법을 알아봤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많이 발생하는 병이 있다. 냉방병이다. 증상은 다양하다. 인후염, 두통, 발열, 소화불량, 생리불순, 만성질병 악화 등이 대표적이다. 원인은 지나친 냉방이다.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가 커서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 발생한다. 치료법은 간단하다. 실내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대개의 경우 증상이 호전된다.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이내로 맞추면 된다. 가정에서 에어컨 설정온도는 26도가 알맞다.

지나친 냉방은 건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준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율이 높아지는 전력요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1백킬로와트 이하를 사용하면 킬로와트당 55.1원이던 요금이 1백~2백킬로와트 사용하면 1백13.8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다. 기본요금도 2배 이상 높다. 건강과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사용법을 소개한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한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강하게 가동하는 것 이상의 냉방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선DB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가동하면 에어컨 설정온도를 2도 낮춘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된다.


사무기기에서 나오는 열은 35도에 달해 냉방 효과를 저해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야 한다.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2도 낮춘 것과 비슷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냉방면적에 비해 에어컨의 용량이 작을 경우에도 선풍기는 요긴하다.

냉기의 순환을 확산시켜 냉방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에어컨과 선풍기의 풍향을 같은 곳으로 맞추면 효과가 더 크다. 에어컨의 설정온도를 2도 높이고 선풍기를 동시에 돌리면 10퍼센트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꺼라 컴퓨터를 끄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전력낭비다. 가전제품이 불필요하게 가동되고 있는데다 실내온도를 높여 냉방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작동시킬 때 나오는 열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5도에 달한다.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끄고 모니터는 절전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넥타이를 풀고 커튼을 쳐라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돌리지 않고도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넥타이를 풀고 커튼을 치면 된다.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도가량 내려간다. 넥타이를 풀고 실내온도를 2도 높게 설정하면 연간 2천6백95억원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가리면 냉방효율이 15퍼센트나 올라간다. 여름철 실내로 들어오는 열의 20~30퍼센트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차지한다.

에어컨과 다리미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 가전제품 중에는 순간 소비전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들이 있다. 에어컨, 전자레인지, 다리미,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기는 모두 순간 소비전력이 1천와트가 넘는다.

이들을 동시에 사용하면 순간 소비전력량이 많아져 일시적인 전력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여름철 오후 시간대 이런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전력을 차단하라 대기전력은 '전기흡혈귀'로 불린다. 그만큼 소모되는 전기가 많다는 얘기다. 대기전력이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을 때 소비되는 전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의미 없이 소비되는 전력이 우리나라 가정에너지사용량의 11퍼센트에 이른다. 이를 통해 낭비되는 비용은 가구당 연간 3만원에 달한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전기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대기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가전제품에 부착돼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확인해 높은 등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전기사용량이 30퍼센트나 적다. 에어컨과 냉장고는 3단계의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대기전력을 최소화시킨 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돼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라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는 것과 에너지 절약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주일에 한 번 필터를 청소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5퍼센트의 절전효과를 볼 수 있다.

먼지가 적으면 에어컨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사용 시에는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에는 2주일마다 필터를 청소하는 것이 알맞다.

차량용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에어컨을 켜면 연료가 추가로 소비된다. 1시간 사용에 0.5~1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 연비는 10~24퍼센트 감소한다. 차량용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량은 사용법에 따라 적잖게 달라진다. 처음 틀 때 최고단수로 가동하면 냉각효율이 높다. 최고단수로 5분 정도 돌린 후 저단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공기순환 방식을 내기모드로 하면 급속냉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새 국민여동생 손연재 "실력으로 승부"

내년 런던올림픽서 리듬체조 메달 꿈… 6월 11~12일 국내 첫 갈라쇼도

김연아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국민 여동생으로 떠오른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얼굴만 예뻐서 주목받는 선수가 아닌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가진 체조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오전 학교수업을 마친 후 하루 7시간씩 지독한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꿈꾸는 손연재의 소망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조선DB

손연재는 오전 학교수업을 마친 뒤 하루 7시간씩 강도높은 훈련을 소화한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선 'LG휘센 리드믹 올스타스 2011 갈라쇼'가 열렸다. 예브게니아 카나에바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는 이번 행사에 한국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7·세종고)도 나섰다. 그는 "국내 팬들에게 리듬체조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며 "색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손연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선수들이 득세하는 리듬체조에서 낯선 동양인으로 세계 10위권을 노크하고 있는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스타다. 그는 5세 때 집 근처 세종대학교에서 하는 '어린이 리듬체조 교실'에서 처음 리듬체조를 배웠다. 어머니 윤현숙(43)씨는 "리듬체조가 발레인 줄 알고 시켰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 손연재는 "국가대표 언니들이 리본을 돌리는 모습이 예뻐 나도 꼭 리듬체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오전 학교수업 끝나면 하루 7시간씩 맹연습

균형 잡힌 몸매와 유연성을 타고난 손연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2007년엔 첫 국제대회인 FIG(국제체조연맹) 월드컵대회(슬로베니아)에서 리듬체조 강국인 동유럽 20여 개국의 선수들과 겨뤄 5위에 오르는 깜짝 성적을 올렸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소속사였던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IB스포츠는 대형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손연재와 2008년 전속 계약을 맺었다.

'리듬체조 요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손연재는 오전 학교수업이 끝난 후 하루 7시간씩 연습에 매진한다. 최근엔 리듬체조 강국 러시아로 건너가 혹독한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요정'은 많이 먹을 수도 없다. 8시는 돼야 하는 저녁식사도 요거트 하나로 끝일 때가 잦다. "친구들처럼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몸을 가볍게 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손연재다.

운동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다. 어머니 윤씨는 "코치가 고난도



조선DB

지난해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경기에서 손연재가 줄 연기를 펼치고 있다.

기술을 못해 낸 연재에게 '이 기술은 빼자'고 했더니 연재가 '그럴 수 없다'며 6시간 동안 한 가지 기술만 연습을 하더라"며 웃었다. 중1 때 몸이 아파 일주일을 쉰 적이 있었는데, 손연재는 "일주일이 1년처럼 지루했다. 플로어에 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손연재의 뒤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전사와 재봉사 역할을 한 어머니가 있다. 윤씨는 한때 직접 경기복을 만들어 외동딸에게 입혔다. 옷감을 사 직접 디자인을 하고 반짝이 장식도 달았다. 그는 "연재에 집중하느라 둘째를 낳을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시니어 데뷔 무대 광저우아시안게임서 첫 메달

손연재는 지난해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안나 알랴브예바(카자흐스탄), 율리아나 트로피모바(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동메달을 따내며 '전국구 스타'가 됐다. 각종 CF와 화보 촬영을 섭렵했고 인터넷 세상도 '손연재'로 도배됐다. 중학교 졸업사진이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저우 동메달은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긴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시니어 무대 데뷔 첫해에 얻은 달콤한 열매였다. 한국 리듬체조 사상 개인 메달은 처음이었다.

올해는 FIG 리듬체조 월드컵시리즈에서 동양인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에 근접했다.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프랑스에서 차례로 열린 월드컵시리즈에서 종합 순위 12~13위를 꾸준히 유지한 것이다. 프랑스 코르베유에손 대회에서는 후프에서 4종목 중 처음으로 27점을 넘기기도 했다. 손연재는 "후프 파이널에 나가니 몇몇 심판들이 '이 동양인 선수는 누구냐?'며 놀라더라"고 말했다.

소녀에서 대표 체조선수로 '변신'한 손연재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얘기한다. 매트 위에서의 여유, 즉 연기를 리듬체조 스포츠 이상인 예술로 표현하는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매트에 서기 전엔 떨린다고 했다.

매트를 벗어나면 평범한 여고생이다. 그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코엑스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고, 스마트폰으로 미니홈피를 보거나 트위터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장에선 '하이킥 시구'로 시선을 모았다.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들과 야구를 즐겨 했다는 손연재는 시구를 앞두고 아빠에게 특훈을 받았다고 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아버지 손동수(48)씨는 "체조선수도 담력이 있어야 한다"며 가끔 외동딸을 밤중에 산에 데려가곤 했다고 한다.

9월 세계선수권서 올림픽 티켓 따는 게 1차 목표

아이스크림과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체중 조절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최근엔 '라푼젤'이란 영화를 감명 깊게 봤고 미스터리 소설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을 재미있게 읽었다. 자기계발서도 즐겨 보는 편이다.

손연재의 꿈은 리듬체조를 잘하는 동양인 선수를 넘어 리듬체조 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는 "아직 세계 정상급 선수들처럼 1분30초가 꽉 차 보이도록 연기를 하진 못한다. 그래도 생각보다 순위가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9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엔 2012년 런던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이 15장 걸려 있다. 개인종합 15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면 2012년 1월 열리는 패자부활전 성격의 프레올림픽에서 나머지 5장 중 1장을 움켜쥘 수 있지만, 손연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올림픽, 올림픽' 하고 올림픽을 입에 달고 살았다"며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G

글 · 장민석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닉 브랜트가 2007년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Elephant Drinking〉. 사진 속 코끼리는 2009년 밀렵꾼들에게 죽임을 당한 채로 발견됐다.

현대사진작가 10인의 〈지구상상展〉

'앵글 속 지구'는 인간과 함께했다

1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존 고토의 '플러드스케이프 Floodscapes' 시리즈는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홍수'가 주제다. 〈Embarkation from Ham〉(2007)

2 베트남 전쟁 이후의 불안한 현재의 풍경을 반영한 피포 누옌-두이의 '에덴의 동쪽 East of Eden' 시리즈 첫 작품 〈Mountain Fire〉(2002).

3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피해자들인 우크라이나 소년들이 놀고 있는 모습. REUTERS/Claudia Daut(2005년 4월 26일)


1


2


3

현대사진 작가들이 상상한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열리는 '현대사진의 향연-지구상상전'(이하 지구상상전)에 가면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지구상상전은 환경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지만 현대사진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상 프로세스' 속에서 재해석된 지구의 모습 2백여 점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크게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 'e art h'에서 그 개념을 추출해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놓았다. 'e'는 환경(Environmental), 'art'는 예술사진(Art Photography), 'h'는 치유(Healing of the earth)를 의미한다. '동물의 초상 사진가' 닉 브랜트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프리카 동물의 모습에서부터 디지털 사진의 개척자라 불리는 존 고토의 연출 사진까지, 현대사진 작가 10인이 상상한 지구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한겨레신문사, 환경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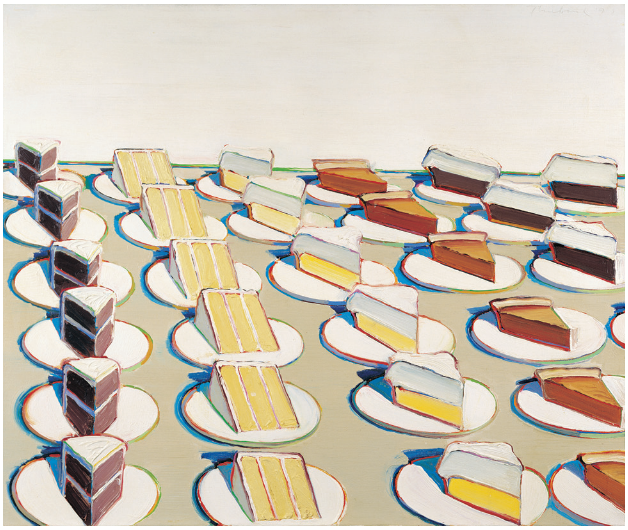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문의**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www.jigusangsang.co.kr ☎02-710-0766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크리스탈 그릇이 있는 정물〉, 캔버스에 유채, 합성 폴리, 1973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제시한 오브제

덕수궁미술관 〈이것이 미국미술이다–휘트니미술관展〉


웨인 티보(Wayne Thiebaud) 〈파이 진열대〉, 캔버스에 유채, 1963



앤디 워홀(Andy Warhol) 〈녹색 코카콜라 병〉
캔버스에 합성 폴리머, 실크스크린 잉크, 흑연, 1962

먹음직스러운 케이크가 캔버스 가득 그려져 있다. '이것도 예술 작품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의 팝 아티스트 웨인 티보가 그린 1963년작 〈파이 진열대〉다.

웨인 티보는 케이크, 핫도그 등 전형적인 미국의 먹을거리를 통해 미국의 소비문화를 표현하는 작품을 주로 그렸다. 친숙하고 쉬운 소재와 달리 작품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줄지어 늘어선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들은 미국의 물질적 풍요를 반영한다. 달콤한 케이크는 미국인들의 일상이자 욕망이다. 동시에 반복된 이미지의 케이크는 미국의 대량생산·소비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전형적인 미국미술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덕수궁미술관에서 개막, 9월 25일까지 개최되는 〈이것이 미국미술이다-휘트니미술관展〉이다. 아시아 최초로 미국 뉴욕의 4대 미술관 중 하나인 휘트니미술관 소장품을 공개하는 특별 전시다.

1931년 개관한 휘트니미술관은 국제미술을 표방한 뉴욕 현대미술관과 달리 '미국의 미술과 작가를 지원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가장 미국적인 미술을 볼 수 있는 미술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같은 휘트니미술관의 주옥같은 현대미술 컬렉션을 여실히 볼 수 있다.

9월 25일까지 거장 47명의 주요 작품 87점 전시

〈이것이 미국미술이다〉전은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미술의 1백년사를 회화, 사진, 오브제(Object)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역동적으로 풀어 냈다. '뉴욕 다다(dada)의 거장' 만 레이부터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현대미술의 거장 47명의 주요 작품 87점이 오브제를 키워드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오브제가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그리고 이 오브제를 활용한 미술이 미국인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반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해질녘의 철로〉, 캔버스에 유채, 1929

영하지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브제는 사전적으로 '물체'를 의미한다. 미술에서 오브제는 일상용품이지만 일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미적(美的) 대상으로 제시된다. 20세기 입체파가 유행하면서 미술작품이 점차 추상화되자 오브제는 현실성의 상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초현실주의, 네오다다, 팝아트를 거치면서 오브제를 활용한 미술은 일상용품에 내재된 시대적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고 나아가 미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6월 11일~9월 25일 매일 전시설명회도 열려

이번 〈이것이 미국미술이다〉 역시 오브제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통해 일상적인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전시회는 '미국 아이콘과 소비문화', '오브제와 정체성', '오브제와 인식' 등 총 3부와 특별 섹션 '미국미술의 시작'으로 구성된다.

이 중 '미국 아이콘과 소비문화'에는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작품들이 많다. 코카콜라, 말보로 담배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상표는 물론이고 패스트푸드, 대중문화 스타, 만화, 성(性)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중소비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을 미술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를 통해 자본주의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웨인 티보의 〈파이 진열대〉 등이 있다.

한편 7월 10일까지 한 달간 부모를 동반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입장이 무료다. 단, 덕수궁 입장료 1천원은 유료.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을 위한 전시설명회도 열린다. 일반인 대상은 매일 3~4회, 어린이 대상은 매일 2회씩 있다. G

글 · 이제남 기자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초 · 중 · 고생 9천5백원, 유치원생 4천원(덕수궁 입장료 포함)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02-2188-6237

Government Call Cente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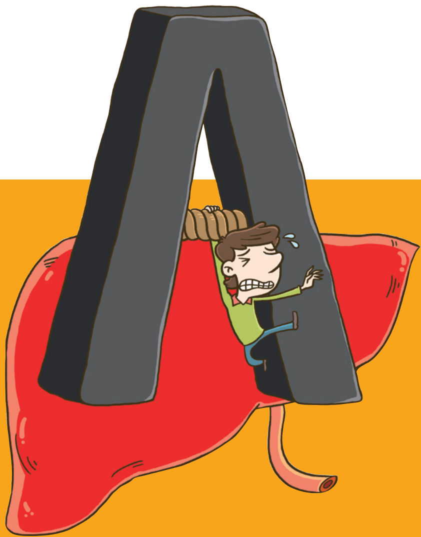
문자상담 | 전화상담 | 수화상담 | 예약상담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은



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A형 간염 예방법!

예방 수칙 실천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씻기를 철저히

요리하기 전, 음식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난 후



음식은 조리하여 먹고, 날 음식은 피하기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음식은 안전하게 익혀먹기



예방접종 철저히 하기

소아, 간질환자 및 A형 간염의 풍토성이 높은 지역 으로의 장기 해외여행자 등은 예방백신 접종 맞기

기 획 특 집

공정사회 걸림돌 전관예우는 없다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현직에 있을 때는 복지부동과 철밥통, 퇴직 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공정사회는 양립할 수 없다.
사회가 외치고 정부가 응답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이 나왔다.
퇴직 후 바람직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현직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복으로, 퇴직 후에는
경험 많고 소명감 강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엔진으로서의 공직자,
더 이상 꿈으로 남겨둘 일이 아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연합

한국의 우수행정시스템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회' 창립식.

공직서 닦은 전문성 공익에 먼저 쓴다

재직 중 축적한 경험·역량을 퇴직 후 사회공헌에 先활용

공직자들의 퇴직 후 삶이 달라질 전망이다. 재직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 갈고 닦은 전문역량을 퇴직 후에도 발휘할 기회가 대폭 증가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전관예우는 철저히 근절하고 바람직한 퇴직 후 삶을 열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퇴직 후에 과거의 경력과 영향력에 기대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관행 탓이다. 특히 최근의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전관예우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철저히 추방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강도가 높다. 해외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대개 취업제한이나 행위제한 중 하나만 운영한다. 취업 전에 심사를 통과하면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취업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이후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에 비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취업제한과 행위제한을 모두 운영한다. 취업심사만 하다가 이번에 행위제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사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기업의 폭도 넓혔다.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과 행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의 경력과 인맥에

의한 영향력을 고려한 재취업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에서 '전문인재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정부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전문인재'로 활약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절처럼 돈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아름다운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강화 위해 보직관리체계 개선

이를 위해 먼저 공직자들이 재직 중에 전문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체계와 교육훈련을 개선하는 등 선진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Z자형의 순환보직 관리 체계를 I자형 직무 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부처 내의 담당업무를 다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결원이 생기면 동일한 분야의 근무자로 충원한다.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적성에 맞는 직무를 부여해 자기발전 욕구도 충족시키고 대내외적인 경쟁력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경력관 체계도 도입한다. 연구직처럼 2직급 체계로 운영해 순환보직 없이 장기간 동일 업무에 재직하게 해 고도의 전문성을 배양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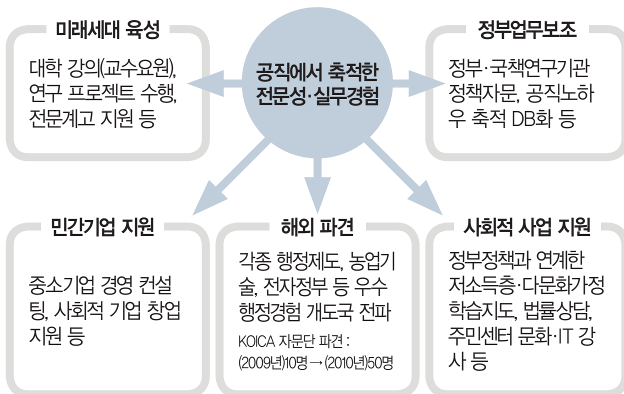
교육시스템은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과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인재를 충원한다.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2013년까지 기관별 정원의 10퍼센트) 민간경력자의 5급 채용(올해 1백명 선발 예정)을 실시한다. 민간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퇴직 후 일할 기회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퇴직공직자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법은 다양하다.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대학강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개도국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전자정부처럼 세계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강화



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행정시스템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정책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사회적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복지형, 교육형, 시장지원형 등 전문분야별 인재를 관리하는 퇴직자 인재풀을 구축하고 퇴직자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취업 상담과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상담센터를 세운다. 2012년 중 연금공단에 9개의 권역별 상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량 모으기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전관예우 근절 등 공직윤리의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다. 포털도 구축해 윤리제도 교육과 실천 계도를 촉진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청렴서약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 기관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권고한다. 5월 현재 1백26개 기관, 4천여 명에 대한 청렴도평가가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관예우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인허가, 면허, 감독 등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법령상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전관예우 관행이 벌어지기 쉬운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작업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경제5단체의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퇴직공무원을 '전관'이 아니라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개도국에 맞춤 컨설팅… '노병'은 살아있다

전력 · 물관리 · 전자무역시스템 등 34개 분야 선정

해외에서 '인생 2막'을 보내는 퇴직공직자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으로 택한 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인환 전 환경부차관은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해방지와 환경정책을 입안하려는 과테말라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과테말라는 한국에 환경정책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급속한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김 전 차관은 과테말라의 요청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였다. 먼저 한국의 환경오염 초기부터 차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20년간 정부의 환경정책에 직접 참여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이론적으로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계명대 환경대학장을 지내는 등 12년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08년 정년퇴임했다.

김 전 차관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테말라 환경정책에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과 IT산업을 연계한 수준급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과테말라에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곤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도 지난해 과테말라로 떠났다. 현지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서다. 6개월 동안 과테말라 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활동하고 돌아왔다.



조선DB

이동곤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가운데)은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해 커피의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등 과테말라의 중소기업 정책을 지원했다.

38년간 중소기업 분야에서 활약한 이 전 부이사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잖은 성과를 창출했다. 먼저 한국의 중미무역사절단을 유치해 과테말라 업체와 무역을 주선했다. 15개 업체가 과테말라를 방문해 2천3백57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하고 6백13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커피의 수출판로도 개척했다.

한국과 미국 등 해외의 바이어들을 접촉해 수출길을 타진했다. 현재 생산업체와 미국의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수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경비만 지급하고 보수 없는 '봉사'

김 전 차관과 이 전 부이사장이 과테말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참여하면서다.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우리의 개발 노하우를 공유해 국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견 기간은 1년이 기본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충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장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노하우는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력, 행정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아 파견되는 전문인력도 민간보다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공공분야 출신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첫 파견을 보낸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원국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백여 개 해외공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각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추리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전력시스템, 물관리시스템, 전자무역시스템 등 34개의 파견분야를 선정했다.

파견할 전문가의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으로 정부나 정부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퇴직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 언어 능력도 있어야 한다. 영어나 파견될 국가의 현지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봉사정신도 요구된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팀장은 "체재비와 활동비 등 파견 소요경비를 지원하지만 보수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돈보다는 보람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한다"며 "파견 국가가 개도국이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없을 수 없는데 봉사정신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전문가 파견자 현황

국가	분야
과테말라(5)	공항운영·관리시스템(1) 공해방지분야(1) 에너지정책(1) 데이터센터 구축 자문(1) SME 수출 지원 시스템(1)
베트남(6)	기상관측시스템(1) 화력발전(2) 환경관리(2) 석유품질관리(1)
코스타리카(2)	이러닝시스템(2)
피지(2)	패션 디자인기술 자문(1) 이러닝시스템(1)
스리랑카(1)	농산업기술개발 자문(1)
아제르바이잔(2)	물관리시스템(1) IT 관리 및 보안(1)
사우디아라비아(2)	주택관련기술자문(1) 통계관리시스템(1)
콜롬비아(1)	과학기술혁신자문(1)
몽골(4)	우정정보(1) 기상관측(1) 방송PD(다큐, 연예)(2)
도미니카공화국(3)	인사IT행정(1) 디스플레이(1) 태양광에너지(1)
중국(1)	환경관리(1)
우즈베키스탄(1)	SME 수출지원시스템(1)
인도네시아(1)	SME 수출지원시스템(1)
케냐(1)	기상관측(1)
말레이시아(1)	이러닝(1)
미얀마(1)	방송(PD)(1)
캄보디아(1)	운전면허관리시스템(1)
태국(1)	운전면허관리시스템(1)

( )안은 파견자 수.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올해 2년차 선발 경쟁률 3배 이상 높아져

경제적인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신분보장이나 편의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먼저 관용여권을 발급해 준다. 민간 신분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년차를 맞은 '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에 대한 관심은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60여 명이 지원해 18개국 36명을 파견했는데 올해는 2백70여 명이 지원해 45명을 뽑았다. 경쟁률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올해 파견규모는 파견기간 연장자를 포함해 50명 수준이다.

이 팀장은 "파견인력을 선정하다 보면 보람 있는 일로 '인생 2막'을 보내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과 정부의 지원 등이 맞물려 퇴직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퇴임 후 평화의료재단 만든 조기성 전 대사

“한민족 이름으로 병원 1백개 기증이 꿈”

38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조기성 전 대사는 퇴직 후 평화의료재단을 설립, 가난한 나라에 작은 병원을 지어 주는 일에 나섰다. 그가 지금까지 지은 병원은 모두 14개. 병원 이름에는 ‘한민족이 인류를 위해 세운 병원’이라는 의미에서 ‘한’이나 ‘코리아’를 붙인다.



서경리 기자

조기성 전 대사가 병원 건립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붉은 점은 이미 건립된 병원, 연두색 점은 건립 예정 병원이다.

1958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을지로6가에 들어선 메디컬센터(지금의 국립의료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스칸디나비아(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나라들의 지원으로 세워진 메디컬센터는 군대 막사식으로 지어진 단출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거리에서 메디컬센터는 하나의 경이였다. 메디컬센터 구내에 들어선 양식점 스칸디나비아클럽은 장안의 명소였다. 젊은이는 생각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시설을 세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젊은이의 이름은 조기성(曺基成),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3학년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다. 이후 청년은 외교관이 됐다. 스페인어 전공자답게 그는 38년의 외교관 생활 대부분을 중남미에서 보냈다.

그가 젊은 날의 꿈을 되살린 것은 1988년 주(駐)과테말라 대사로 부임해서였다. 30여 년 전 한국을 연상케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조 대사는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과테말라에 병원을 지어 주자고. 하지만 그의 제안은 메아리를 얻지 못했다.

4년 후 그는 주페루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페루는 당시 좌익게릴라들과의 내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는 다시 병원 건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는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1993년, 페루의 시골마을 카야오에 페루-한국의료센터가 설립됐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건립한 최초의 병원이었다.

이듬해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방한(訪韓)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왔다. 조 대사는 친구처럼 지내던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병원을 하나 더 짓자고. 정부에서 내려온 돈에 민간모금이 더해졌다. 이듬해 반정부게릴라 가족들의 집단거주지였던 코마스에 로드리게스-덕실의료센터가 들어섰다.

과테말라에 병원 지을 때는 직접 벽돌 날라

이후 조 전 대사는 주아르헨티나 대사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조지타운대 초빙교수, 이화여대 법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하지만 주과테말라 대사 시절 병원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는 과테말라로 건너갔다. 페루에 병원을 지을 때는 우리 정부

의 지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몸으로 때웠다. 비용은 그가 개인적으로 마련했다. 과테말라 정부에서 내놓은 땅은 원시림 한가운데였다. 여기서 그는 6개월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벽돌과 시멘트 갤 물을 날랐다. 과테말라 치멜코의 메르세데스-덕실의료센터는 이렇게 세워졌다. 조 전 대사의 회고다.

"2002년 병원이 문을 열던 날, 원주민 여성들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무의촌 지역으로 임신부 중 30퍼센트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니 안도감의 눈물이었지요."

과테말라에서 돌아온 후 조기성 전 대사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을 모아 평화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조 전 대사가 설립한 병원은 라틴아메리카에 4개, 아시아에 5개, 아프리카에 5개 등 모두 14개다. 페루에 지은 두 개의 병원을 제외한 12개는 그가 개인돈으로, 혹은 후원금을 모아 지은 것이다. 가장 최근에 세운 병원은 지난 4월 준공된 아프리카 가나 반도-한의료센터다. 오는 7월에는 부룬디 부줌부라에 부룬디-한의료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병원 이름을 지을 때에는 병원이 세워지는 나라나 지역 이름 뒤에 '한'을 붙입니다. 현지 언어로 '한'을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이름에 '코리아'를 붙이죠. '한민족이 인류를 위해 세운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달 후원금 1만원이면 1년에 벽돌 4백장 구입

평화의료재단은 병원 설립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메디컬센터를 세울 때 사용했던 방법을 원용하고 있다.

현지 정부는 3천제곱미터의 땅을 제공하고 전기·수도를 연결시켜 주며 병원 담장을 설치해 줘야 한다. 그러면 평화의료재단에서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병실 12개짜리 병원이나 병실 20개짜리 병원을 지어 주고 수술대 등 12가지 기본 의료장비와 책상·약품보관용 냉장고 등 집기류를 제공해 준다. 병원 하나를 짓고 의료기기와 집기까지 비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만2천 달러 정도. 의사·간호사·고용원들을 확보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현지 정부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평화의료재단은 10억원 가량을 모금했다. 정회원 회비는 월 1만원이다.

"돈 1만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 돈이면 벽돌 30장을 살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백장 가까운 벽돌을 살 수 있어요."

병동(9.9제곱미터, 병실 3개) 1개를 지을 돈을 희사하는 회원들도 있다. 1개 동 이상을 건립한 회원만 20명이 넘는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은 19개 동, 정철도 삼부토건 전무는 6개 동, 최원철 스페

평화의료재단



조기성 전 대사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14개의 병원을 세웠다. 사진은 2006년 5월 문을 연 몽골 도르노트 정은·한 메디칼 센터의 개소식 모습.

인교민회장은 5개 동을 건립했다.

파라과이와 필리핀에 병원을 지을 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도움을 줬고, 동티모르와 스와질란드에 병원을 지을 때에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료기기 구입을 지원해 줬다. 유한양행 등 제약회사, 제약협회 등에서는 의약품을 기증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태극제약에서 2억원어치의 약품을 기증했다.

가족들도 동참하고 있다. 조 전 대사의 부인은 친구들과 자원봉사를 하고, 아들은 병원 7개 동을 지을 돈을 내놓았다.

조기성 전 대사는 "후원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 한신빌딩에 있는 사무실은 지인들이 돈을 모아 차려 준 것이다. 용지는 이면지를 사용하고, 봉투도 한 번 썼던 것에 종이를 붙여 다시 사용하고 있다.

조 전 대사의 목표는 세계 곳곳에 1백개의 병원을 짓는 것이다.

"외국에 의사를 파견하거나 의약품을 지원해 주는 재단은 많이 있어도, 가난한 나라에 병원을 지어 주는 재단은 우리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젊은 날의 꿈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는 마음으로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G

글·배진영 기자

문의·평화의료재단 ☎02-703-5517, 5566

전문기술 내세워 농촌현장서 자원봉사

1천2백여 회원들, 농민 대상으로 민원처리·영농기술 자문활동

농촌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해 재능기부에 힘쓰고 있는 퇴직공직자들의 모임이 있다. 바로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 이들 자문단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녹색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녹색 퇴직문화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다.


조선DB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한 딸기재배 농가에서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과 농촌현장지원단이 딸기생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농촌현장지원단이 민원처리를 위해 지역현장을 방문할 경우, 각 지역에 사는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이 현장에서 기술자문을 맡는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재룡(63)씨는 요즘 봉사활동에 푹 빠져 지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국장까지 지낸 이씨는 퇴직 후 많은 기업들의 취업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고사했다. 이씨는 "공직생활을 많이 했으니 이젠 봉사만할 것"이라며 "기업에서 일하면 수입은 많겠지만 후배들에게 부담 주는 일이기도 하고 몸담았던 기관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9년 10월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 퇴직자 모임인 '농진회'를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으로 위촉했다. 퇴직공직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농촌현장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자문단은 영농현장 모니터링, 해외 농업기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수는 전국 1천2백여 명이다.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애로사항 농촌진흥청에 전달

이씨는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으로서 영농현장 모니터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농촌진흥청에 전달하는 등 현장 지원을 돕고 있다"며 "퇴직 후 직접 황매실과 약초 등을 기르고 있다. 이를 통해 미생물을 이용한 녹색기술 농업을 연구하고 주변 농업인들에게 녹색기술을 전파하는 현장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농현장 모니터위원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의 민원처리를 도와준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사랑방'을 통해 지역의 영농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 1백86명의 모니터위원이 활동중이다. 대부분이 지역 농민들이지만 퇴직공무원 18명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퇴직공무원 출신의 모니터위원들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현장지원도 돕는다. 농촌현장지원단이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경우, 각 지역에 사는 이들이 현장에서 기술자문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고창호 농촌지도사는 "지난해 퇴직공무원 출신 모니터위원들의 현장 지원은 1백83건이었다"며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이들이 중간에서 모니터링을 잘해 줘서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란다 등 이용한 도시농업 전수도

이재룡씨는 모니터위원 활동과 함께 개별 봉사활동도 한다. 농촌지도직을 담당해 온 그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교육을 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2009년 퇴직한 후 3년째 노인 대상 강의 봉사를 해 오고 있다. 일주일에 2번, 노인복지회관에서 농사체험 등의 노인체험활동과 건강관리법, 과일선택법 등 생활정보를 가르친다.

"요즘 농촌이나 도시 모두 노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들에게 농사체험 등의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강의를 나가는 분당도 원래 농촌이었습니다. 이곳이 개발되면서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전파하고 있죠."

그의 강의는 주부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씨는 "베란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는 도시농업은 요즘 화두"라며 "스위스의 시민농원처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요즘 생활이 즐겁다. 퇴직 후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녹색기술 시니어자문단 정금주(66)씨도 재능기부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 그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장으로 근무한 후 2004년 퇴직했다. 퇴직 후 모교인 서울대 농업대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2009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국내 퇴직공무원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해외 봉사에 지원했다.


조선DB

미얀마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담당한 정금주(왼쪽 두번째)씨와 미얀마 부녀자들.

정씨는 "농촌생활지도직을 담당하며 한국 농촌 여성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은퇴 후 해외에서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년에 걸쳐 6개월간 미얀마에 머무르며 새마을운동 사업을 벌였다.

"제가 갔던 미얀마의 케양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1960년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들은 주로 움막집에 사는데 의식주 개선이 필요했죠. 저는 농촌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개선전문가로 파견돼 다른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했어요."

정씨를 포함해 총 9명의 농업전문가들이 파견됐다. 이들의 지도 아래, 미얀마 농촌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새마을운동 구호인 '근면, 자주, 협동'을 외치며 미얀마 농촌 주민들이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여기에는 부녀자들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개도국 농촌에 파견돼 새마을운동 지원도

그는 케양 새마을부녀회를 조직하고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등 영양교육도 실시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마을의 이장 부인인 민미찌(36) 씨였다고 한다. 민미찌 씨는 정씨가 떠나는 날 "저도 우리 아이를 선생님처럼 훌륭히 키우고 싶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도 농촌영양개선 사업을 할 때 해외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지원을 직접 받았던 세대로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쪽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이 있으면 참여할 계획입니다. 몸만 건강하면 70세 전후까지는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G

글 · 이제남 기자

소년원서 연극 봉사하는 유인촌 전 장관

"자!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거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연극 재능기부가 조용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삶에 대한 용기를 잃은 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꿈을 키우고 잃어버린 자긍심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재능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동시에 재능기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소심한 말단 공무원이 극장에서 만난 장관 머리에 대고 심한 재채기를 한다면? 겁 많은 엄살쟁이 사제와 돌팔이 치과의사가 만난다면?

이처럼 아찔하거나 혹은 엉뚱한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대강당에서 소년원 학생들이 출연해 선보인 연극 〈굿 닥터〉(The Good Doctor)에서다.

〈굿 닥터〉는 러시아 희곡작가 안톤 체홉이 젊은 시절 신문에 연재한 짧은 이야기를 미국의 코미디 작가 닐 사이먼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서 만든 풍자극이다.

이 밖에도 공원에서 처음 만난 두 노인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늦은 행복', 마음씨 착한 가정교사와 월급을 주지 않으려는 주인의 신경전을 다룬 '가정교사' 등 6편의 에피소드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조선DB

"연기란 이렇게 하는 거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소년원 아이들과 〈굿 닥터〉 공연(5월 12일)을 앞두고 연극연습을 하고 있다.

이날 연극의 총 연출자는 바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유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설 생각했던 봉사를 실천하려고 퇴임 직후 적당한 곳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알게 된 곳이 서울소년원이다.

이곳은 6개월~2년 보호처분을 받은 10대 비행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유 전 장관이 이 학교에서 연극반 지원자를 모집하자 순식간에 20여 명이 몰렸다.

낙인 찍힌 아이들이 자아를 찾는 문화교육

'장관'이란 명함을 내려놓고 순수 연극인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3월 7일부터 10회가량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지도를 했다. 공연을 하루 앞둔 5월 11일에는 아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연습을 해 오후 9시가 돼서야 지도를 끝냈다.

유 전 장관을 처음 만났을 당시 아이들 절반 이상은 꿈이 '없다'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 가정교사, 치과의사, 건달, 경찰





〈굿 닥터〉 공연을 마친 뒤 유인촌 전 장관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유인촌 전 장관과 함께 〈굿 닥터〉 공연장을 찾은 배우 이정재씨가 아이들에게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관, 매춘부, 아들과 아버지 등 배역을 맡아 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달라졌다. 세상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었지만 연극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공연 날엔 관객 앞에 당당히 섰다. 물론 아이들의 대사 전달력과 감정 표현력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굿 타임〉은 보통 연극과는 분명 달랐다. 서툴지만 울림이 있었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 그간의 준비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유 전 장관과의 첫 만남부터 대본 연습, 동선 짜기 등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와 멘토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연극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 같다", "처음에는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노력해 성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재채기' 에피소드에서 공무원 역을 맡았던 최지훈 군(가명)은 "그저 시간이 빨리 갈 거란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장관님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연극 공연 후 생각해 보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였던 것 같다"며 웃었다.

유 전 장관은 아이들의 공연이 끝난 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 전 장관은 "입시에 관련된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오래전부터 해주고 싶었다"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문화예술 교육이 전해져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었기 때문에 소년원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한 나라의 정부부처 장관을 3년이나 하고 나와 곧바로 상업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광고를 찍는다든지 내 일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3~5년은 그동안 받은 것을 국민들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령 · 김명곤 전 장관도 꾸준한 재능기부

재능기부에 나선 다른 전직 장관들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3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갤러리에서 국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1백 인의 예술가를 '2011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공식 위촉했다. 가수 인순이, 디자이너 이상봉, 궁중음식연구가 한복려, 지휘자 금난새 등과 함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10년에 이어 2년째 문화예술 명예교사가 되어 어린이, 청소년, 지역민, 군부대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밖에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 박범신 소설가,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이금희 아나운서 등과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재능기부 선포식을 하고 12월 23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개운중학교 연극 연습실에서 중학생 아이들의 연극을 지도하기도 했다.

당장은 봇물 같은 흐름이 아닐지라도, 이들 전직 장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기부가 이어져 물방울이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는 도도한 물흐름이 되어 분명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개도국 돌며 경제개발 ‘가정교사’

5개년 계획 등 알짜정보 모은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

공직을 떠났지만, 재직시절 쌓아왔던 ‘경제개발 내공’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도국 대상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전직 관료들이 그들이다.



일러스트·이철원

“현직 관료들은 현재의 업무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들이 못하는 일들을 퇴직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경제개발 노하우 전도사’라 불리는 윤대희(62) 전 국무조정실장의 말이다. 그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거쳐 2008년 3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33년간 몸담았던 공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의 개도국 대상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사업) 통해 개도국을 돌며 ‘나랏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는 “평생 해오던 일을 퇴직 후에도 KSP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한다.

윤 전 실장이 개도국 KSP사업에 참여한 것은 작년 2월 아프리카 가나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경제계획과 연간예산의 연계방안’ 사업부터였다.

“정부에서 가나를 대상으로 KSP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직 장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국립의료원에 가서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그는 “가나 방문 후 KSP사업에 자신과 같은 퇴직 관료들이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깨달았다”고 말한다.

“가나에 가보니 현직 경제부처 장관 3명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우리 KSP사업단을 맞았어요. 한국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저를 포함한 사업단은 그 자리에서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외국인 투자유치 경험 등을 조언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개도국에서 시작해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 경제 관료로 재직하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과 시행착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국제경제과장, 주 제네바 대표부 재경관 등을 거치며 국내 경제통으로 통하던 그였기에 KSP 정책자문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나 관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후 그는 아제르바이잔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발전 전략' 사업, 라오스 '거시경제안정화정책 수립' 사업까지 총 4개의 개도국에서 진행한 KSP사업에 단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개도국 정책자문뿐 아니라 KSP 사업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이미 개도국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2월 가나를 방문한 KSP사업단. KSP사업단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우리의 몇십 년 현장경험 설명에 반응 뜨거워

STX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STX는 작년 가나의 20만 호 주택건설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1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약을 성사시켰다. "사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진출을 도울 수는 없지만 KSP사업이 국내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가교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KSP사업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공유를 요청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걸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정책자문사업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작년까지 총 20개국, 2백여 개 경제과제에 대해 사업단을 파견해 정책자문을 제공했다.

2010년부터는 KSP사업에 전직 경제 관료들의 활약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정호용 사무관은 "KSP사업은 2009년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되면서 개도국 경제 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10년 KSP사업에는 윤 전 실장을 비롯해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사업),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정부의 고위정책 우선분야 정책솔루션 개발' 사업),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몽골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과 예금보험제도' 사업),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페루 'CEPLAN과 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이 참여했다.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추진

KSP사업에 참여한 전직 관료들은 "우리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개도국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된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 실장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들의 산 경험이야말로 현재 개도국에 필요한 알짜 정보"라면서 "해당 관료들이 연로해 KSP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이들의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퇴직한 고위급 관료들의 참여도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학계, 국책/민간 연구기관, 공기업 등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G

글·박근희 기자

배진영



투·개표 전산화 자문위원으로 몽골에 파견될 안평국 전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배진영



도시개발 자문위원으로 에콰도르에 파견될 박용성 전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

개도국에 선진행정 노하우 전파

6개월·1년 단위로 파견… 도시개발·인적자원관리·선거관리 등 자문

한국국제협력단은 작년부터 중장기자문단(World Friend Advisors) 파견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퇴직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1차로 전직 고위공무원·예비역 장교 등 14명이 선발돼 12개국에 파견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작년부터 'WFK(World Friends Korea: 2009년부터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해외봉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사업'의 일환으로 중장기자문단(World Friend Advisors) 파견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퇴직인력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10일 '제3기 중장기자문단' 발단식을 마친 후 단원들이 KOICA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작년에는 6월에 19명, 10월에 26명이 선발됐다. 금년에도 1차로 14명이 선발됐다. 중장기자문단에 선발된 14명은 지난 6월 6~10일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훈련센터에서 4박5일간 합숙하면서 ▲봉사활동의 원칙과 실제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범세계적 이슈 등 국제적 안목 함양 ▲프로젝트 관리 ▲문화적응력 및 한국문화 이해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과 체력 배양 등 '파견 전 소양교육'을 받았다.

6월 13~15일 컴퓨터 활용 등 직무교육을 끝으로 7월 중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엘살바도르·탄자니아·몽골·에콰도르·파키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몽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스리랑카에 파견될 심재구 예비역 육군대령.

골·우간다·방글라데시·르완다로 파견되어 교육·농촌개발·산업에너지·도시개발·직업훈련·축산·임업·인적자원관리·선거관리·보건위생·컴퓨터·지역사회개발 등에 관해 조언하게 된다.

중장기자문단 단원들의 이력은 다양하다. 전직 교수, 의사, 민간기술연구소 연구원, 산림전문가 등…. 그중에는 전직 고급 공무원과 예비역 장교도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8일 중장기자문단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훈련센터를 찾았다.

안평국(64)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은 1980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전남·경기·인천·서울 등의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퇴직했다. 안 전 상임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몽골 선거관리위원회로 파견되어 1년간 투·개표 시스템 전산화에 대해 조언하게 된다.

퇴직 후 보람 있는 일 찾다 기회 생겨

그는 "평생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고만 살았다는 생각에서 65세 이후의 삶은 남에게 무엇인가 되돌려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왔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퇴직 후 영어·중국어 등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몽골에 파견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더니 그 말이 맞더군요.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2~3년 앞서 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1984년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에 가서 선거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연수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IT강국 대한민국의 선거 전산화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전수하게 되어 가슴 뿌듯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박융성(61) 전 서울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은 1970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중간에 기술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건설안전본부·균형발전본부와 종로·송파·강북·성북구청 등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덕단지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벤치마킹해 과학지식도시를 건설하려는 에콰도르의 국가기획개발부에 파견되어 6개월간 일할 예정이다.

"퇴직 후 무슨 일을 하면 보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마침 딸이 국제개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도시 자체도 많이 다르겠지만, 제 평생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버스중앙차로제는 남미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이번 파견은 비단 우리의 경험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심재구(59) 예비역 육군대령은 육사(32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 등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33년간 군생활을 하다가 2008년 예편했다. 그는 군 시절 인력 및 시설관리, 교육훈련 등의 경험을 살려 스리랑카의 공공관리개혁부에서 6개월간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에 관해 조언할 예정이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남을 위해 봉사"

그가 중장기자문단에 응하게 된 것은 주미얀마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미얀마에 나와 있는 KOICA 소장이나 해외봉사단 대원들과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해외봉사를 나온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진 달란트(재능)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마침 KOICA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인력을 모집한다기에 군 시절 경험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한 전공과 맞아 응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6개월이라는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너무 짧다"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현지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의 도구를 시험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본 후 피드백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다시 개량하고 전파·홍보하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왕 남의 나라를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

글·배진영 기자

서필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전관예우 벌칙 조항 등 실효성 높이겠다”

제도가 바뀐다고 세상이 당장 변하지는 않는다.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고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전관예우처럼 뿌리 깊은 관행을 근절하려면 그만큼 주도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불문가지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에게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각오를 들었다.



한준호 기자

“민간전문가와 정치인, 전·현직 공무원 등 가능한 한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공직윤리와 관련한 의원입법 발의안만 1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번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이 의원입법 발의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종전의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도 공직자윤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그만큼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였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전관예우라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단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제도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전관예우라는 폐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제도를 대거 도입한 데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후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퇴직 후 바람직한 사회공헌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선 공직윤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도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도적인 맹점이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공직윤리제도에서는 퇴직 후 재취업의 제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취업심사제도를 통해 재취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이게 제도상의 맹점이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이런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재취업을 승인해 줬는

데 나중에 보니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도적인 맹점을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취업 후에 청탁과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크게 3가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1+1 업무제한).

또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부적절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재직 공무원에게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재직 중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개인적으로든 기관 차원이든 취업 청탁과 알선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까지 시행해 온 취업심사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공직 기간의 업무가 재취업할 민간기업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지를 퇴직 전 3년 동안의 경력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퇴직 전 3년 동안의 경력을 관리하는, 이른바 '경력세탁'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대상이 금감원 전체 직원의 14퍼센트에서 77퍼센트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경우 현재는 감사, 토목, 건축 분야에 한해 실무직 공직자의 재취업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으로는 군수품관리, 방위력개선 분야의 실무직 공무원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입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제도 위반에 대한 벌칙사항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벌칙조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처벌 외에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장·차관과 1급 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1+1 업무제한' 규정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1년 동안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 1년 전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로펌에 취업한 공직자의 경우엔 변호사법에서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로펌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년 동안의 업무내역서를 해당 로펌에서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내역서는 우려와 달리 성실하게 작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근절방안은 종전의 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한 데다 기존에 없던 행위제한제도까지 더해져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유례없이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저항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하는 공직자는 경제부처 등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은 다소 불만을 가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재취업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재취업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요.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 탓에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근절방안이 시행되면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리라 기대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근절방안은 결코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관련성 등 기준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관행은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공직사회도 퇴직 후 취업규정이 강해졌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공정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대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퇴직 후 공직자의 민간활동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는 취지입니다. 공직 경험과 전문 역량을 활용해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저개발 국가에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니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더군요. 정부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민간에서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 체계와 교육훈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 후에 돈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번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10월경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

글·변형주 기자



나전칠기 세계화를 꿈꾸는 손대현 장인

"전통문양도 재해석하면 현대적이 돼요"

오색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나전칠기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한때 자취를 감췄던 나전칠기가 자동차, 아이폰 케이스 등에 접목되면서
국내 대중에게뿐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전통 공예의 대중화를 꿈꾸는 손대현 장인에게 그 비법을 물었다.

지난 4월 열린 2011 서울모터쇼에서 나전칠기로 내부를 장식한 고급 수입차가 전시돼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자동차에 장식된 나전칠기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옻칠장 손대현씨의 작품이었다.

나전칠기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수공예로, 옻칠한 농짝이나 나무 그릇 등에 진줏빛이 나는 자개 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붙여서 장식한 공예품이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흔히 볼 수 없지만 최근 나전칠기가 세계 시장을 목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현재 수곡공방을 운영 중인 손대현 장인은 나전칠기 세계화에 힘쓰고 있는 주역이다.

나전칠기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칠기'는 옻칠을 한 작품을 뜻하고 '나전'은 자개 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여서 장식하는 공예 기법을 말하는 용어예요. 즉, 나전칠기란 칠기에 나전 기법으로 장식한 공예품을 말하는 거죠. 나전 재료는 크게 전복껍데기와 소라껍데기로 나뉘져요. 소라껍데기는 빛깔이 맑고 투명한 반면 전복껍데기는 무지개처럼 오색영롱한 빛깔을 냅니다."

어떤 계기로 나전칠기를 배우게 되셨나요.

"어릴 때 무역회사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그 건물 2층에 칠기공방이 있었어요. 자주 구경 다녔는데 자개빛깔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때부터 칠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죠."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제가 14살이던 1964년 무렵이에요. 무척 오래됐죠?(웃음) 일을 시작한 후 나전칠기 분야에 명인 세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게 됐죠. 김봉영 선생님, 김태휘 선생님, 그리고 민종태 선생님. 기왕 일을 하려면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민종태 선생님을 찾아뵈러 갔었죠. 그런





최근 손대현 장인이 선보인 나전칠기 장식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손 장인이 나전칠기를 작업하는 모습(왼쪽)과 차량 내부에 장식된 나전칠기.

데 처음에는 뵙지도 못하고 돌아섰죠. 여러 번 찾아가다 보니 선생님 수하에 계신 분과 알게 돼 공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승이었던 민종태 선생님께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나요.

"선생님께서는 일본 수출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는 일본 바이어가 찾아와 '차 도구'를 부탁하며 오동잎이 그려진 일본 전통문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시더니 선생님께선 일언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민 선생님은 '일본 문양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우리 문양을 구상해서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하고 아님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일본분이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후 샘플이 나와서 일본 바이어가 다시 공방에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완성된 '차 도구'를 내오자, 그 일본분이 보고는 감동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작품을 공손히 받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늘 당부하시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우리 문화와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을 해외에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문양을 가지고 작업했다가는 우리 것이 없어진다고 강조하셨죠. 민 선생님을 통해 전 우리 전통문화와 문양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다른 문양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전통문양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뭔가요.

"우리 전통문양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집에 가 보면 대물림해서 쓰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전통문양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찾은 전통문양을 재해석해 새로운 문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문양은 십장생과 당초인데, 당초는 넝쿨무늬예요. 저 같은 경우 옛날 당초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문양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특히 나비당초 문양을 좋아합니다."

최근 고급 수입차의 나전칠기 장식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나전칠기 장식을 다른 분야에 접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방한했을 때 전자액자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었어요. 저는 모란당초 문양으로 옻칠을 해서 액자 틀을 만들었어요. 그때 첨단 제품에 우리 전통문양을 더하면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죠.

최근 고급 수입차의 내부 장식에도 모란당초 문양을 썼어요. 처음엔 수입사 측에서 심플하고 현대적인 문양을 의뢰했지만 저는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장인이고 나전이라는 것 자체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니 저한테 맡겨 달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완성작을 보자마자 다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웃음)

우리 것이 세계로 나가면 세계적인 것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적인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우리 바탕이 없어지고 말아요. 즉 우리의 구심점,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전 우리 문양을 재해석하면 충분히 심플하고 현대적인 문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 우리 나전칠기가 정말 세계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전칠기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세계시장에 어떻게 나전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회를 찾고 있어요. 수입차와 함께한 작업도 그 일환이고요. 좀 더 제도적인 부분들이 보완돼서 좋은 작품들을 해외에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G

글 · 박미래 (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탈북여성의 '친정엄마' 관악경찰서 조경숙 경위

"신변보호 하다 정 들어 혼주만 세 번"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조경숙 경위는 최근 '탈북여성 셋 시집 보낸 형사'로 화제를 모았다. 한 일간지에 그가 탈북여성을 친정엄마처럼 돌본 사연이 소개되면서 노총각인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오는 할머니들까지 생겼다.


이경호 기자

조경숙 경위는 "경찰 업무로써 탈북자 신변 보호를 맡고 있지만 참 보람되다. 앞으로도 경찰관이라는 본분 안에서 탈북자들을 적극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보안과 조경숙(50) 경위는 탈북여성들에게 '엄마'라 불린다. 그는 14년째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를 맡아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

혼주 자리도 세 번이나 앉았다. 조 경위를 엄마처럼 의지하는 탈북여성들의 간곡한 부탁에서였다. 지난 4월 30일에도 결혼식 참석을 위해 강원도 춘천을 다녀왔다. 탈북여성 김은주(35)씨가 '조 형사님은 고아처럼 자라온 제게 진짜 엄마처럼 든든한 존재'라며 자신의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길 부탁했다고 한다.

"은주씨와는 지난해 7월 제가 담당형사일 때 알게 됐어요. 은주씨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죠. 남자가 성실해 보이고 둘이 서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자녀문제 등 고민 들어주는 게 보호업무의 첫걸음

김씨는 결혼식장에서 조 경위를 '우리 엄마'라고 소개했고 다행히(?) 닮은 외모 덕에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주례를 맡은 분이 주례사에서 '신부 측에 앉은 조 경위는 실은 은주씨가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담당형사'라고 사연을 밝혔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측 하객으로 참석한 어르신들이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본의 아니게 밝혀져서 살짝 낯이 뜨겁기도 했지만 매우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조 경위가 처음 혼주를 맡은 것은 2002년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할 때였다. 당시 담당했던 한 탈북여성이 한국인 사업가와 결혼한다고 해서 조 경위는 이것저것 친정엄마처럼 챙겨줬다고 한다. 그 여성이 '믿고 의지할 사람은 형사님밖에 없다'며 혼주 자리에 앉아줄 것을 부탁했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혼주 자리에 앉았다.

"혼주 자리에 앉는 것도 경찰관 업무의 연장이라 여기니까 긴장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복을 차려 입고 제가 담당하던 탈북여성의 친정엄마 자리에 앉으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직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이나 혼주 자리에 앉았네요.


지난 4월 30일 한 탈북여성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조경숙 경위.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제 딸 결혼식에는 연습 안 해도 잘하겠죠?(웃음)”

조 경위는 조만간 혼주 자리에 또 앉기로 예약된 상태다. 은주씨 결혼식에 친구로 참석한 또 다른 탈북여성의 부탁을 받은 것. 그는 조 경위가 이날 결혼식에서 처음 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탈북여성은 신부의 어머니로 참석한 조 경위를 보고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조 경위에게 자신의 결혼식에도 꼭 혼주 역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조 경위가 지금까지 담당한 탈북자는 약 2백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전체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아요. 북한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한 편이지만 가족을 떼어놓고 온 그리움과 외로움, 자기 혼자만 왔다는 죄책감 등이 커서 심리적 안정이 많이 필요해요.”

이 때문에 조 경위는 담당 탈북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며 지낸다. 그가 탈북자 관리업무를 처음 맡은 초임 형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런 ‘친분 쌓기’이다.

“탈북자 신변보호는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요한 업무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변보호가 어려워요. 자녀문제, 취업문제 등 탈북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신변보호 업무의 첫걸음이죠.”

조 경위는 1981년 경찰이 됐다.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경찰시험을 봤는데 8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한 번에 합격했다. 여경이 흔치 않던 시절, 조 경위는 당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교통 수신호를 실시한 최초의 여경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14년간 수사업무를 담당해 오다 1998년부터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를 맡게 됐다.

“1998년 경찰서 내 탈북자 신변보호 업무가 처음 생겼어요. 이전까지 탈북자들은 ‘귀순용사’라 불리며 군이나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경찰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죠.”

현재 전국적으로 탈북자는 2만1천여 명이다. 각 지역 경찰서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신변에 가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가 맡은 탈북자 신변 보호는 참 보람된 일이에요.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보람된 일인데,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죠.”

조 경위는 탈북여성 이외에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그의 주선으로 탈북 청소년 2명이 매달 지역단체로부터 5만원씩 장학금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요리·IT 분야 등의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직업전문학교와 취업 MOU를 맺었다.

장학금 주선 등 탈북 청소년들에도 관심 쏟아

강남의 한 변호사사무실에 부탁해 탈북자들이 법률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비를 털어 탈북 청소년 6명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있어도 일이 바빠 놀이공원에 가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찰관이라는 본분 안에서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조 경위는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 통일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 실험장의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의 한마디는 통일 후 어떤 정책 홍보보다 남북주민 통합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G

글 · 이제남 기자





'365일 행복충전 기차여행'은 특별 관광열차로 구제역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운영된다(왼쪽 사진). 열차 내 이벤트 칸에서는 강연과 공연이 진행됐다.

무공해 제천에서 행복을 충전하세요

구제역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특별 관광열차 운행

기차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365일 행복충전 기차여행'은 구제역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일코스로 진행된 이날의 여행지는 충북 제천. 관광 서포터즈 및 각 지역 관광 해설사 등 3백여 명은 초여름의 무공해 제천을 한껏 즐겼다.

이번 특별 열차는 기차 한 칸을 이벤트 칸으로 꾸며 각종 강연과 레크리에이션이 함께 진행됐다. '건강'을 주제로 한 홍혜걸 박사의 특별 강연 시간이 마련됐다.

홍 박사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차 한편에는 제천의 특산품인 각종 약초와 기념품들이 전시돼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다.

퓨전 국악팀의 연주와 노래가 이어지는가 하면 웃음치료사가 각 칸마다 찾아가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덕분에 3시간의 기차 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지역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참가한 주부 이순례(53)씨는 "기차여행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며 "다양한 이벤트가 곁들여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목적지인 제천역에 도착하니 오전 11시30분이었다. 6월의 따가운 햇살이 역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전통 북춤 공연이 열리는 광장에서는 제천 시민들이 나와 환한 미소로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역전 5일장에 이은 청풍호 '러브투어'

최규학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함께 제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단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제천의 전통시장인 '제천 한마음





'제천 한마음 시장'은 특별 관광열차 운행으로 모처럼 '장날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시장'이었다. 이곳은 제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매월 3·8로 끝나는 날마다 5일장도 선다.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제천은 2005년 정부로부터 약초 웰빙 부문 지역특구로 지정돼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열린 5일장 곳곳에서도 향기만 맡아도 건강해질 것만 같은 향긋한 약재와 전통 먹을거리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40년을 제천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맹준택(76)씨는 북적이는 관광객들을 가리키며 "모처럼 장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 살맛이 난다. 제천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점심 뒤에는 '제천 러브투어'가 이어졌다. 제천시와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제천 러브투어'는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35명 이상이면 관광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해설사가 관광지 안내를 해줄 뿐 아니라 관광지의 입장료나 체험료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제천 문화해설사의 구수한 설명을 들으며 청풍호 선착장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청풍 나루와 장회 나루를 왕복하는 1시간30분 코스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확 트인 쪽빛 청풍호와 멀리 보이는 능선, 봉우리를 감상하며 강을 따라가다 보니 가슴까지 확 트이는 기분이었다.

청풍대교를 지나 멀리 보이는 금수산(제천 제5경)과 월악산(제천 제3경) 뒤로 대나무순 모양으로 기묘하게 쭉쭉 뻗어 있는 옥순봉(제천 제8경)이 보였다. 관광객 사이에서 탄성이 쏟아졌다.

당일 코스 웰빙여행으로 에너지 재충전

이어 들른 곳은 '청풍 문화재단지'(제천 제4경)다. 청풍 문화재단지는 충주댐 건설을 위해 남한강 유역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한곳에 모아 이전한 곳이다.

문화해설사 서달원씨는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5개 면에 걸쳐 2만명 정도의 이재민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과 유물들을 가져와 이곳에 전시해 놓았다"며 "고향을 그리는 애환이 담긴 곳이면서 동시에 문화재로서도 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제천은 산세가 깊고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산소 농도가 진해 약초나 식물을 가꾸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제천 여행은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에너지를 재충전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웰빙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으로의 기차여행을 적극 추천한다. G

글과 사진·지혜영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르완다에 제빵기술 보급하는 시니어봉사단원 최남희씨

옥수수빵의 추억이 '베풂의 길'로 이끌다

WFK(World Friend Korea) 해외봉사단원의 활약은 젊은 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평생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다 퇴직 후 안락함 대신 개도국이나 오지로의 해외봉사를 선택한 시니어봉사단원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래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르완다 제빵기술 보급에 나선 최남희씨의 봉사는 어린 시절 먹었던 '옥수숫가루빵'에서 시작됐다.

"보릿고개 때 학교에서 옥수숫가루빵과 굳은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굳은 우유는 하굣길에 입에 넣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씩 빨아먹었지요. 그걸 빨아먹고 오면 배고픈 줄도 몰랐고, 그야말로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봉사단파견사업 시니어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그때의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르완다국립농대(ISAE)에서 제빵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최남희 단원의 말이다. 그가 이순(耳順)이 훨씬 지난 나이(65)에 봉사단파견사업 시니어봉사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가난과 굶주림 속에 맛봤던 '옥수숫가루빵'에 대한 추억 때문이다.

최남희씨는 2007년 12월 르완다 키갈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말년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부푼 꿈보다는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의 베풂으로 인해 따뜻한 유년의 기억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을 위한 '봉사의 길'이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시니어봉사단원으로 르완다국립농대 식품과학기술과에서 제빵기술 보급에 힘썼다.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 재직시절 발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되살려 르완다에 그 기술을 보급했다. 2009년 11월 단원으로서의 임기는 끝났지만 그의 봉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2년의 봉사기간을 마친 그는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르완다로 향했다.

2년 봉사 뒤 만류하던 아내와 함께 다시 찾아

처음 봉사를 떠날 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아내도 함께했다는 것. 그는 "봉사단원 신청을 만류하던 아내는 이제 실험실습 시간에 들어와 열심히 보조해 주고 있다"고 전한다.





최남희 단원은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35년간 제약회사에서 발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르완다에 제빵기술을 보급하고 있다(왼쪽 사진). "어른을 깍듯이 공경한다"는 르완다의 아이들. "빵 하나로 행복해지는 아이들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현재 르완다에는 르완다국립농대에 3명, 공과대학에 1명, 국립대학에 1명으로 총 5명의 시니어단원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제빵기술 보급 분야는 그가 도맡고 있다.

"처음 현지 도착 후 빵의 위생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학생들 급식용 빵도 '과연 먹을 수나 있을까' 할 정도였죠. 재료뿐 아니라 제조 과정도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원방안을 고심하다 KOICA에 현장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사업은 KOICA 봉사단원이 본인 주도로 소속기관 및 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기획,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위생적인 제빵기기를 갖춘 공장설립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제빵용 기계를 들이기 위해 한국에서 기계를 사들이고 전기를 보완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수도에서 1백20킬로미터 떨어진 국립농대로 오는 시간은 그보다 더 소요됐다. 하지만 그는 "어렵게 도착한 제빵기계 하나가 가져다 준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처음 빵을 굽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먹음직스런 빵들은 그야말로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사라졌어요. 그 다음 날엔 세네갈,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5개국 교육부장관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제빵시설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장관들은 하나같이 한국 제빵기계의 우수성과 빵의 품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장관들이 시식 후 품평을 하는 모습은 르완다 TV 'new time'에 방영되기도 했다.

생산된 빵은 품질을 인정받아 타사 제품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기술전수뿐 아니라 식생활 개선에 이어 소득증대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제빵 실습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기술전수 이어 식생활 개선·소득증대 사업

그는 "르완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개발도상국에 한국 시니어단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고 말한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시니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공유는 실제로 개발도상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부장관도 '한국의 시니어단원이 많이 와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역시 한국 발전의 근간이 됐던 시니어들이 개도국 가난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호소했다. "다만 의사소통에 무리가 있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팀당 한 명씩 통역봉사자를 파견해 주는 등의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현지에 있는 봉사자들의 정신무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며 시니어단원으로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일조하기 위한 봉사인 만큼 그 취지를 잊지 말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르완다에는 시니어단원 포함 일반단원 29명, 새마을봉사단원 5명 등 총 56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기술전수뿐 아니라 식품을 통한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르완다 KOICA 봉사단 파견현황

분야	파견인원			파견직종
	계	남	여	
교육 (13명)	8	5	3	체육교육
	3	2	1	과학교육
	1	1	0	수학교육
	1	0	1	미술
정보통신 (28명)	28	19	9	컴퓨터
산업에너지 (5명)	1	1	0	전기
	1	1	0	자동차
	3	1	2	건축
보건의료 (1명)	1	0	1	치위생
농촌개발 (5명)	1	1	0	임업
	1	1	0	원예
	3	2	1	지역사회개발
행정제도 (2명)	1	1	0	경영
	1	1	0	경제
환경 및 기타 (2명)	1	0	1	사서
	1	1	0	환경
총계	56	37	1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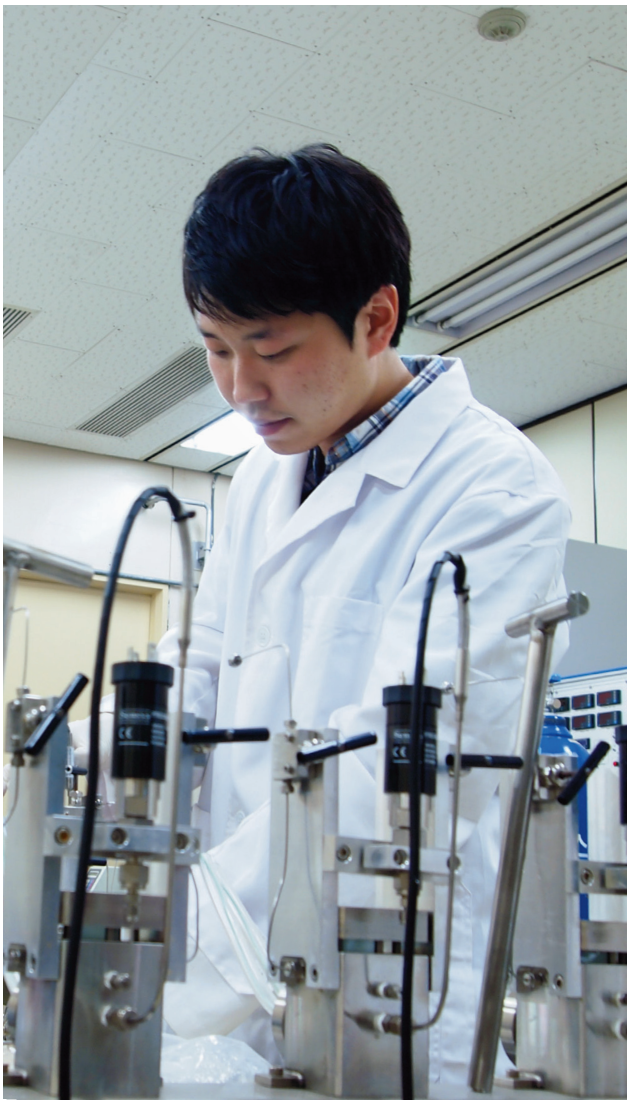
※ 2011년 6월 기준

출처 KOICA 제공

포항공대 박사과정 조기졸업 앞둔 이보람씨

성실·도전의 힘… '평범에서 비범으로'

세계의 저명한 저널에 한국인 과학자의 논문이 실리는 것은 이제 너무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과학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이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과학계의 변두리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연구 수준을 뽐내고 있는 과학 한국을 이끌어갈 G20 세대의 젊은 과학자를 만나보았다.



평범한 고교생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보람은

2006년 동아대 금속공학과 졸업 · 2008년 부산대 재료공학과 석사 졸업
현재 현재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3년차

포항공대 화학공학과에서 박사과정 3년째인 이보람(32)씨는 '과학 한국'을 책임질 유망한 젊은 과학자다. 흔히 '포항공대 박사과정'이라고 하면 과학고, 명문대를 거친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려니 할 테지만, 그의 인생은 조금은 남다르다.

그는 고교 시절 무척이나 평범한 학생이었다. "고교 1학년 때는 반에서 7등 정도를 유지했어요.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런가 성적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반에서 15등, 20등까지 떨어져 봤어요."

고교 2학년 어느 날,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했다. 보람씨는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 혼이 날 줄 알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는 "누구나 겪는 슬럼프를 잠시 겪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고 한다.

"그 일을 겪은 바로 다음 시험에서 절치부심해 전교 29등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사건이지만 저는 이 작은 성공을 통해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께 감사 드려요."

그렇지만 놓쳐버린 기본기를 만회하기란 쉽지 않았다. 고전 끝에 그는 동아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1, 2학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해 학점 잘 받아 취직이나 잘해 보자는 생각이었죠."

적극적 자세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군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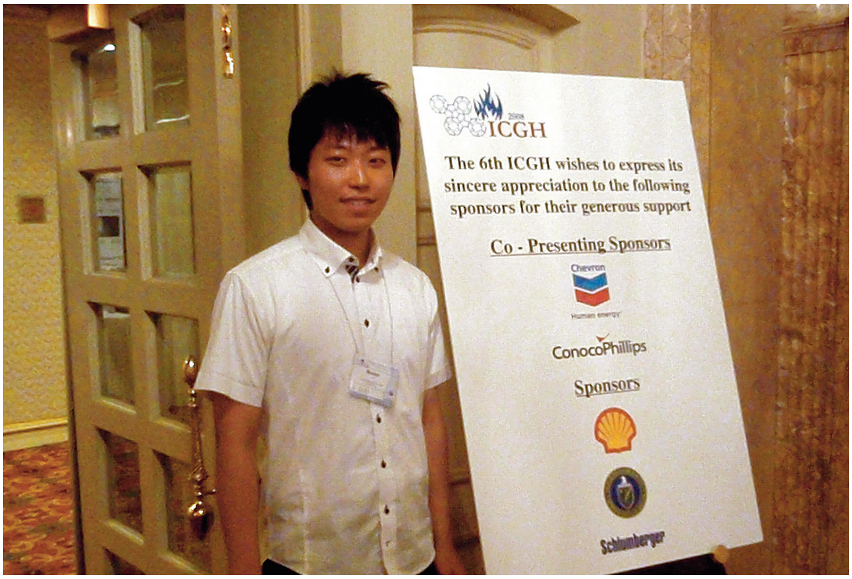
하지만 2년간의 군생활이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흔히 남들에겐 기피의 대상이고 괴로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군생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언급하는 모습에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필자는 사뭇 놀랐다.

"군대에서 별명이 처음에는 '재수 없는 놈'이었어요. 온갖 악재가 겹쳐서 보직이 4번이나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저는 매

번 보직이 바뀔 때마다 적극 배우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했죠. 결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별명은 'A급'으로 바뀌었죠. 하하."

그가 2002년 강릉 MBC가 선정한 모범 병사에 뽑힌 것은 그의 이런 군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은 모습은 그의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진다. 성공적인 군생활만큼 연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세칭 '명문대'가 아니었던 출신 대학이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부산대 대학원 재료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200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가스 하이드레이트 국제회의(ICGH)에 참석한 이보람씨. 이씨는 이 회의에서 자신을 포항공대 박사 과정으로 이끌어준 이건홍 교수를 만났다.

"그래도 석사 시절은 본격적인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어요. 연구에서는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오더군요. 정말 열심히 했죠."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그의 연구에 거칠 것이 없었다. 그는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되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석사과정 동안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에 1편, 국내 저널에 1편의 논문을 실었다. 그리고 평점 4.5점 만점으로 수석졸업의 기염을 토하였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기왕 연구를 시작한 만큼,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죠. 그래서 박사 과정은 소위 국내 최정상급이라 불리는 곳으로 도전해 보았죠. 요즘은 국내 최정상급이면 세계에서도 최정상급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출신 대학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대학원 입시에 '암묵적 선발기준'이 있어 제가 입학을 원하는 대학원에서 동아대 학부를 나온 학생이 입학한 전례가 없을 경우 선발 인원이 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

그가 좌절하고 있을 무렵, 지금의 지도교수인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이건홍 교수가 그를 선발한 것이다. 그는 대학원 입학에 앞서 캐나다 밴쿠버의 한 학회장에서 있었던 이 교수와의 첫 만남을 생생히 회상하며 말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 이 교수님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야의 연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어떤 학부 출신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며 저의 잠재력만으로 저를 뽑아주셨어요. 아마 동아대 학부 출신으로 포항공과대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는 귀한 인연을 따라 포항공대 화학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됐다. 포항공대에서 최초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야 연구를 개척했으며, 뛰어난 연구 결과도 선보이고 있다. 그 결과 그 어렵다는 박사과정을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할 예정이다. 올 7월에는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국제회의(ICGH)'에서 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의 20대는 정말 평범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도전이 있었다. 그는 늘 가지 않은 길을 서슴없이 택했고, 늘 발전이 뒤따랐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실함과 거침없는 도전정신, 그는 전형적인 G20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보통의 삶 속에서도 특별한 목표를 꿈꾸는 수많은 G20세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 G



글 · 이재근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석사 과정)



지난 5월 27일부터 시범운행 중인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의 내부. 편안한 소파와 발마사지기, 대형TV 등이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예비맘과 직장맘들에게 휴식과 정보 제공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도심속 예비맘의 사랑방 '맘이 좋은 방'

45인승 버스 개조…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 다섯 곳 요일별로 순환

예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전용공간이 도심에 등장했다. 보건복지부와 롯데백화점이 공동으로 펼치는 출산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행되는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이다. '맘이 좋은 방'은 버스 내에 임산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해 일하는 예비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임신 5개월째에 들어선 김희경(34)씨는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맘 놓고 쉬어 본 적이 없다. 퉁퉁 부어 오른 다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탁한 사무실 공기 때문에 속이 메슥거리고 숨이 막혀도 '일하는 예비맘들이 다 겪는 일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김씨는 한결 편안해졌다. 매주 목요일마다 직장 근처로 찾아오는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 덕분이다.

'그래 봤자 버스인데…'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차내는 이용객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할 정도로 알차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다. 카페처럼 화사하게 꾸며진 이 공간은 지난 5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롯데백화점이 공동으로 펼치는 출산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이다.

발마사지 기계 · 태교음악 등 임산부들 배려

하늘색으로 예쁘게 래핑된 버스 '맘이 좋은 방'은 주중에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 5곳을 요일별로 순환하면서 예비맘과 워킹맘을 위한 전용공간이 되어 주고 있다. 바쁜 일정으로 임신 중 몸 관리나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서 있는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

찾아가는 출산장려 버스 '맘이 좋은 방'

구분	내용
이용 대상	일하는 예비맘 (임신 예정, 임신 중), 출산 직후 워킹맘
이용 방법	운행시간 중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운영 기간	5월 27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
운영 지역	을지로, 역삼동, 가산디지털단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시 내 5곳
요일별 방문 지역	**월요일**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 **화요일** 강남 역삼역 인근 **수요일** 가산디지털단지 코오롱 테크노밸리 앞 **목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금요일** 여의도역 2번 출구
운영 시간	**운영 요일** 매주 월~금요일(평일 기준) **운영 시간** 오전 11시~오후 2시 / 오후 5~8시
주요 서비스	**전문가 상담** 간단한 진단 및 산부인과 전문의 및 간호사에 의한 상담 (의사는 장소별 월 2회, 간호사는 상시 근무) **출산·육아 정보** 출산·육아에 관한 정보제공용 홍보물 및 도서 비치 **태교 프로그램** 태교 영상·음악·도서 이용 가능 **휴식 서비스** 아로마테라피, 발마사지, 유기농 다과 제공

태교 및 정보 획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예비맘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무실 밀집지역을 방문해 출산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주차돼 서 있는 '맘이 좋은 방' 버스 속을 들어가 보니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인상적인 점은 책장 속에 가지런히 꽂힌 출산, 육아 정보서와 소파마다 발마사지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것.

실내는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꾸며졌으며, 임산부들의 피로를 풀어 줄 발마사지 기계와 아로마테라피, 태교음악으로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했다. 휴식 중에 읽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책자를 비치해 둔 한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대형 TV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은 기본이고 유기농 다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모든 전기제품들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점도 '맘이 좋은 방'의 특징이다. 임산부들을 위한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날 맘이 좋은 방을 처음 찾았다는 임신 4개월의 예비맘 김시원(34)씨는 "첫 임신이라 궁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지만 시간을 낼 수 없어 병원에 찾아가기 어려웠는데, 이곳에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맘이 좋은 방'은 워킹맘들이 업무 중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쉼터이기에 출산을 앞둔 예비맘이나 워킹맘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내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해 임산부 기초 진단과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해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는 예비맘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명실상부한 '찾아가는 병원'인 셈이다.

순천향대학병원 산부인과의 최규연(45) 교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맘이 좋은 방'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하는 예비맘들이 잠깐이라도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단한 진단과 출산 상담도 가능

이날 버스에서 만난 정윤정(33)씨는 임신 6개월째에 들어선 예비맘으로 직장 근처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 반색을 했다. "일하다가 잠깐 와서 쉴 수도 있고 옆의 임산부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다"며 "더 많은 예비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맘이 좋은 방' 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되는데, 을지로, 역삼동, 가산디지털단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 다섯 곳을 돌아가며 방문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8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맘이 좋은 방'을 시범 운영해 본 뒤 지방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맘이 좋은 방' 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맘이 좋은 방' 버스가 운영된 이후 블로그를 통해 이용후기 댓글을 쓰는 '다함께~ 맘이 좋은 방을 나누세요' 이벤트와 직접 버스 사진을 찍어 올리는 '맘이 좋은 방을 찾아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G

글·이윤진 객원기자 / 사진·염동우 기자

맘이 좋은 방 블로그 http://blog.naver.com/motherplus

장애인 '억울한 등급판정' 사라진다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반영… 이의신청 땐 장애인 입장에서 재심사


조선DB

장애인등록제가 장애등급 심사에 전문성은 더하고 심사 기준은 완화하는 등 장애인 중심으로 대폭 개선됐다. 사진은 6월 8일 제주에서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장애인들.

장애인등록제도 주요 변경내용

장애등급 심사절차 개선	•(현행)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판정 → (개정)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인이 판정 •주요 사안 심사결과 통보전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장애등급심사기준 완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는 판정기준 마련 예)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보완
이의신청 내실화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안내 의무화 •이의신청 시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편의제공 확대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 서비스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장애인등록 절차가 실시됐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백51만7천명(2010년말 기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장애인등록제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전문 심사기관이 수행한다. 이전에는 일선 병·의원에서 의사 1명이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등급판정 업무를 모두 담당했다. 이번 개선으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만 제시하고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의사 2명이 함께 판정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심사센터는 각 분야별 7백20명의 의사로 구성한 자문의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장애등급심사 기준은 완화됐다. 그동안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을 적용해 판정했으나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의 경우도 종전 장애판정 기준인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완화하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했다.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도 장애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를 반드시 본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안내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장애인 입장에서 재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선 병·의원은 진단만… 판정은 전문기관서 수행

특히 장애판정 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개정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편의는 더욱 커졌다.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신청 등으로 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원이 직접 장애인을 방문, 상담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심사서류를 직접 확보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차량지원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G

글·이제남 기자
문의·보건복지부 www.mw.go.kr ☎129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낮에 멀쩡하다 밤에 증상 나타나는 '일몰증후군' 환자에도 혜택

낮에는 멀쩡하던 어르신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치매증상이 나타나 안절부절못하거나 먹기를 거부하고 배회하는 등의 증상을 '일몰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몰증후군과 같이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로까지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치매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환자 6천여 명 이상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컸지만,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조선DB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6월 1일부터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어르신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경증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독거노인에 생활기상 SMS 서비스

또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도 강화된다. 즉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이 현행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은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최근 수급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가족 관계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가 지급된다. 이는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이용횟수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는 대신 지급 기준이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된다.

한편 기상청은 이달초 서울시와 협력해 정보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기상정보 SMS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여름철 폭염과 강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되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에 따라 기상청이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및 폭염특보를 서울시와 시내 25개 구청의 노인복지 담당공무원과 6백여 명의 '노인돌봄이'에게 휴대폰 메시지(SMS)로 전달하면, 이 정보가 다시 서울지역 독거노인 약 20만명에게 전달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상청 ☎02-2181-0852



허니문 박주영, 프리미어리그에 신혼집?

프랑스리그서 킬러 본능 입증… 토트넘 등서 러브콜

한국 축구의 축이 서서히 박지성(30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주영(26 · AS모나코)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 초 2011 아시안컵을 끝으로 박지성은 대표팀에서 은퇴하고, 박주영이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다. 이름값과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박지성과 달리 박주영은 후배들과 친밀한 교분을 바탕으로 눈높이 맞춤형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박주영은 유럽무대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6월. 한국 축구의 뉴캡틴 박주영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막을 내린 2010~2011 프랑스 리그에서 소속팀 AS모나코가 9승17무12패의 성적표로 전체 20개팀 중 18위에 그쳐 다음 시즌 2부리그로의 강등이 확정됐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박주영에게 6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다.

무엇보다 많은 변화가 박주영 앞에 놓여 있다. 먼저 6월 12일 고려대 1년 선배인 정유정씨와 화촉을 밝혀 인생의 2막을 열었다. 그는 또 프로 인생의 3막을 열 새로운 팀도 물색 중이다. 6월부터 7월까지 유럽 리그의 오프시즌 동안 그를 데려가기 위한 유럽 각 클럽의 장외 각축전이 어떻게 끝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주영은 6월에 들어서자마자 축구 대표팀 '조광래호'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지난 3일 서울서 열린 유럽강호 세르비아와의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결혼을 자축하듯 2대1 승리를 이끄는 선취골을 쏘아 올렸다. 7일 전주서 열린 가나전에서도 주장이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실력은 물론이고 리더로서도 은퇴하고 떠난 '캡틴' 박지성의 공백을 메웠다.

박지성 대신할 한국축구 아이콘으로

한국 축구의 축은 서서히 은퇴한 박지성에서 박주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름값과 권위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박지성과 달리 박주영은 이미 후배들과 친밀한 교분을 바탕으로 한 눈높이 맞춤형 리더십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의 클럽 맨유에 몸담은 채 최고 인기의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성의 '명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박주영은 다소 관심도가 떨어지는 프랑스 리그에서 매 시즌 고군분투하며 성장했다. 동양인 공격수로 K리그에서 곧장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박지성, 이영표 등 유럽 무대에 진출한 선수들의 포지션은 동양인에 다소 경쟁력이 있는 측면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가 대부분이었다. 정통 스트라이커가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전을 꿰차며 매 시즌 골 수를 늘려 가고 가치를 확장한 것만으로도 유럽 무대 한국인 선수 진출사에 새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주영은 지난 시즌 많은 부침이 있었다. 적잖은 내리막도 있었지만 이를 견뎌내고 이뤄낸 약진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리그전에서 골뒤풀이를 하다 무릎을 다치는 기막힌 불상사를 겪고 올 초 2011 아시안컵에 나서지 못할 때만 해도 불운에 시달렸다.

부상을 딛고 1월 말부터 그라운드에 나선 그는 뛰는 게 사무쳤는지 2월에만 3골을 몰아쳤다. 4월에는 아를 아비뇽, 릴, 니스전에서 3연속 골을 터뜨리며 한껏 비상했다. 결국 2010~2011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세 시즌 만에 개인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모두 34경기에 나서 12골을 넣었다. 이는 팀내 1위이자 프랑스 리그 득점 랭킹 13위에 해당한다. 2008년 8월 모나코에 입단해 2008~2009시즌 5골 6도움(35경기), 2009~2010시즌 9골 3도움(33경기)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한 뼘 이상 도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적료 1백억원대 거론… 병역문제 걸림돌

유럽 리그에서 단일시즌 두 자릿수 골 기록은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인으론 차범근(1985~1986시즌 독일 레버쿠젠 소속 17골), 설기현(2002~2003시즌 벨기에 안더레흐트 소속 13골), 박지성(2004~2005시즌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소속 11골)에 이어 4번째다. 박지성과 설기현은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하위 리그에서 기록한 골수여서 가치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 시즌 10골은 유럽 리그 내 간판 골잡이를 재는 척도다. 골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가치도 높아졌다.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그를 데려가려는 팀들도 쏟아진다.

2월부터 러브콜을 보낸 팀으로 프랑스 파리생제르맹, 리옹,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잉글랜드의 첼시, 리버풀, 볼턴 등이 거론됐다. 이적료는 600만 파운드(약 1백6억원) 내외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도 가세했다.

현실적으론 리버풀과 토트넘의 입질이 가장 적극적이고 근거가 있다. 리버풀은 메인 스폰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아시아 지역 마케팅을 위해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놓은 상태다.

아시아 선수 중 유럽 무대서 검증된 선수로는 박주영 이청용(볼턴) 등이 대표적이다. 토트넘은 이적료 530만 파운드(약 93억원)를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해 유럽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있는 팀으로 옮기고 싶다던 박주영의 바람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몇 가지 우려도 있다. 이적할 팀들이 여럿 거론되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선 적잖은 한계도 뛰어넘어야 한다. 병역법상 늦어도 28세에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박주영은 미래가치를 매기기 어렵다.

과중한 몸값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협상의 주요 테마다. 박주영은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첼시, 리버풀 이적설이 나돌았지만 현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미 동고동락했던 에이전트도 교체하고 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향한 준비에 들어갔다. 박주영의 2011년 여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G

글 · 오광춘 (스포츠서울 체육1부 기자)



연합

AS모나코에서 골 결정력을 입증한 박주영이 어떤 클럽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맨 안윤상

“수백번 반복 연습하니 내 안에 딴 사람이…”

남을 흉내 내서 인기를 얻는 ‘인간 복사기’. 개그맨 안윤상은 남보원, 고 백남봉, 최병서, 김학도 등 성대모사의 달인 계보를 잇는 새로운 기대주다. 정·재계, 연예계 인물 등 1백여 명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따라하는 그의 ‘연기’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철저한 인물 탐구와 끊임없는 반복 연습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스포츠서울

이명박 대통령, 박지성, 변희봉, 유해진, 송새벽, 송강호, 만화영화 ‘곰돌이 푸’의 피그렛… 이들의 공통점은? ‘성대모사의 달인’ 개그맨 안윤상(29)이 흉내 내는 대상들이다. 안윤상은 개그콘서트 ‘슈퍼스타 KBS’ 코너에서 정·재계, 연예계, 체육계 명사의 목소리는 물론 피그렛 역할의 성우 목소리까지 ‘싱크로율 1백퍼센트’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다.

안윤상이 성대모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백여 명.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모사하는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이다. 모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자주 쓰는 말투를 연구해 듣고 또 듣는다.

송새벽 성대모사는 MP3로 2백번쯤 반복연습

“성대모사를 하기 전에 먼저 모사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해요. 성대모사를 한두 번 해 보고 안된다고 포기하면 성대모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MP3에 목소리를 녹음해 넣어놓고 수백번을 반복해서 들어요. 영화 〈방자전〉의 송새벽씨 성대모사를 할 때는 한 2백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개그맨 공채시험을 볼 때는 배우 변희봉 선생님 목소리를 성대모사했는데 그때는 3개월 동안 매일 반복 연습했어요.”

모든 개인기가 그렇겠지만 성대모사야말로 땀 흘려 연습, 또 연습하는 노력만이 결실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대모사로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 계기가 돼 직접 만나 인연을 맺은 인사도 있다. 바로 정당인 허경영씨다. 허씨의 공연 무대에 함께 올라 성대모사를 하며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내가 총재님의 목소리를 희화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흉내 내면 낼수록 나는 좋다’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성대모사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세상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인 성대모사를 하는 걸 보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

어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해요. 선진국일수록 정치 풍자가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정치 풍자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모사도 부담 없이 편안히 하고 있어요."

동료 개그맨들의 목소리도 수시로 흉내 낸다. 특히 개그콘서트 동료 박영진과 박성광, 최효종 등의 목소리를 즐겨 흉내 낸다.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는 바로 박지성 선수 목소리. 개인적으로 박 선수의 골수팬인 안윤상은 "언젠가는 꼭 박지성 선수를 만나 성대모사를 직접 들려주기도 하고,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개그소재 연구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개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영화와 인터넷 서핑 등을 즐기지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곳은 길거리다. 아이디어가 막히면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한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식이죠."

군대서 원맨콩트로 상받은 뒤 개그맨 지원

안윤상의 어렸을 때 꿈은 개그맨과 성우 두 가지였다. 지금 남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꿈을 다 이룬 셈이다.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로 〈배칠수·전영미의 와와쇼〉라는 프로그램이 공개방송 녹화를 하러 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부대 대표로 무대에 올라 원맨 콩트를 펼쳐 백지 포상증을 받았어요. 당시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짜릿한 기분을 더 느끼고 싶어 개그맨을 지망했고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밖에서는 남을 웃기는 개그맨이지만 집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가난하게 성장했지만 나이 들수록 부모님을 더욱 안쓰럽게 생각한다.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어 개그맨이 된 게 더욱 행복하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서먹서먹했는데 커 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데 몇 년 전 암수술을 받고 더욱 약해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께 자전거도 사 드리고 옷도 사 드릴 수 있어서 요즘이 무척 좋아요. 조만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족 여행을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삼십 줄에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해 보고 있다. 그의 이상형은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여성이다. "남자라면 대부분 착하고 예쁘고 이해심 많은 여성을 찾겠지요. 사실 이상형의 여자친구를 얼마 전 소개로 만났어요. 앞으로 더 만나봐야겠지만 제 불규칙한 연예인 생활도 잘 이해해 주는 마음이 예쁜 친구예요. 얼굴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모 기상캐스터를 닮았다고 하던걸요."



KBS화면

개그콘서트 '슈퍼스타 KBS' 코너에서 성대모사와 모창을 하고 있는 안윤상.

성대모사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개그맨이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단다. 그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개그맨은 김병만 선배와 동기인 박영진이다.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천재성을 높이 평가한다. 안윤상은 "성대모사도 좋지만 앞으로는 연기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개그맨이 돼 시청자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김효원 (스포츠서울 사회부 기자)

춘향전을 재해석한 〈방자전〉

방자가 방자한 거야? 사회가 방자한 거야?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방자전〉에서 방자는 노비 신분인데도 주인인 이몽룡에게 꽤나 방자(!)하게 군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실제로 고전소설 〈춘향전〉 속 방자도 주인에게 억눌린 노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몽룡을 때로는 놀려먹으면서 유쾌한 모습을 보인다.

김대우 감독의 〈방자전〉(2010년작)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춘향전〉을 현대적 관점으로 비틀어 재해석한 영화이다. 그러기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도령과 춘향이가 아니고 방자(김주혁 분)이다.

영화는 고전소설을 재해석한 작품답게 옛날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상을 곳곳에서 풍자하여 쓴웃음을 자아내게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극 장르의 작품답게 조선후기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고전소설 〈춘향전〉에 녹아 있는 신분상승의 염원, 상업의 발달과 신분제 해체 등 사회변화를 방자의 삶을 통해 충실히 그려냈다.

방자(房子)는 기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방관아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내종을 이르는 말이다. 방자가 주로 했던 일은 홀몸으로 부임한 관리들의 방을 치우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잔심부름이었다. 방에 딸린 아이라 하여 방자라고 불린 것이다.

일반명사이던 방자는 〈춘향전〉에서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의 방을 돌보던 방자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고유한 이름처럼 되어버렸다. 방자는 공노비이기 때문에 모시는 주인은 부임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다.


조선DB

〈춘향전〉속 인물들을 완전히 해체해 재탄생시킨 〈방자전〉에서 방자와 춘향은 몽룡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춘향전〉에서 방자는 마치 이몽룡 집안의 사노비처럼 이몽룡이 한양에 갈 때 그를 따라간다. 이것은 조선후기 이미 노비제도가 해이해져 공사의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방자전〉에서는 한술 더 떠 방자를 그 집안에서 거느리는 솔거노비로 자리매김 해놓았다.

그런데 영화 속 방자는 분명 노비 신분인데도 주인인 이몽룡에게 꽤나 방자(!)하게 군다. 최고의 신분인 양반과 가장 미천한 신분인 노비가 남자의 자존심을 걸고 팽팽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다소 과장은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후기 상황이라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영화선 노비인 방자가 양반 몽룡을 놀려먹어

실제로 고전소설 〈춘향전〉 속 방자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인에게 억눌린 노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몽룡을 때로는 놀려먹으면서 유쾌한 모습을 보인다.

조선후기는 신분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18세기 들어서면서, 상업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 부추겼다. 한결같은 소출만 보장하던 농업의 시대를 벗어나 여기저기서 시장이 형성되고 상업으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농경사회에 기반한 신분제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하여야만 했다.

이전에는 주인집을 벗어나면 굶어 죽어야만 했던 노비들도 달아나 몸을 숨기고 시장거리를 떠돌다 보면 밥술을 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에다 주인집에 함께 사는 솔거노비가 아닌, 일정하게 신공만 바치면 바깥에서 살 수 있던 외거노비는 인신의 자유와 함께 재산도 모을 수가 있었다. 영화 〈방자전〉의 방자는 이몽룡이 한양으로 간 후 남원에 남아 외거노비가 되어 월매의 주막을 돕는 이서방으

로 변신한다. 그는 고을의 향리에게 줄을 대고 거리의 무뢰배들과 어울리며 재산을 모아 오늘날로 치자면 조폭의 우두머리 정도로 성장을 한다. 이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실제로는 신분제가 느슨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신분의 구분은 엄격하였다. 영화 속 방자는 가급적 조선후기 사회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신분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길을 찾았지만 춘향이의 꿈은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모계를 따르게 되어 있었다.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 비록 성참판의 서녀라고는 하나 어머니인 월매의 신분을 따르자면 그녀도 남원부의 관기가 되었어야 했다. 월매는 딸이 자기처럼 기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서 춘향이 대신 기적에 올리고 춘향이를 양인 신분으로 만들었다. 훗날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할 때 춘향은 자신은 기생이 아니라 여염집 여인이라고 항변하지만 변사또가 기생의 딸이면 기생이라고 못 박는 것도 이런 신분제의 모계세습 때문이다.



남원에는 조선중기부터 여러 춘향 설화 떠돌아

영화 〈방자전〉에서는 방자가 춘향이를 위해 가난한 글쟁이 양반(공형진 분)을 사서 소설을 쓰게 한다.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려다 실패한 춘향의 한을 소설을 통해서나마 풀어주고자 한 것이다. 실제 남원에는 춘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화가 조선중기부터 떠돌았다.

그 대부분의 설화는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 양반 도령을 사랑하다가 버림받고 자결하는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 한을 품고 죽은 여인으로 인해 고을에 재앙이 생기자 사람들은 〈춘향전〉이라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녀의 넋을 위로했다는 것이다.

구전되어 오던 〈춘향전〉이 기록된 것은 1754년 유진한의 문집 〈만화집〉에서이다. 유진한은 이 〈춘향전〉을 남원 지역을 여행하다 들은 이야기라며 기록하였다.

이몽룡의 모델이 된 실존인물은 조선중기 청백리로 알려진 성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남원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와 남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성이성은 훗날 호남지역 암행어사로 와서 4차례나 어사출또를 하며 지역의 탐관오리들을 벌주었다고 한다.

그는 말년에 광한루에 와서 예전에 알던 늙은 기생을 만나고 소년시절의 일을 그리워하며 잠을 못 이루었다는 일기를 남겼다. 실제 그가 젊은 시절 남원에서 경험한 비슷한 로맨스가 여러 가지 설화와 습합되어 춘향전으로 재탄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보면 성이성이 버리고 간 춘향을 거두어 남은 인생을 돌봐준 남자의 존재가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방자건 아니건, 그는 춘향에게는 영화 속 방자처럼 듬직하고 믿음이 가지만, 결코 그녀의 꿈은 이루어줄 수 없는 슬픈 지아비였을 것이다. G

글·김정미(시나리오 작가)

"과학은 내 친구"… 전국투어 과학콘서트

해양·자연서 첨단로봇까지… 11월 6일까지 대전 등 7곳 순회



바다의 지배자 상어도 만나고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진귀한 화석들이며 내 말대로 움직이는 로봇까지, 해양·자연·첨단과학을 두루두루 맛볼 수 있는 '과학콘서트 전국투어'가 11월 6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10일 시작한 과학콘서트 전국투어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전국 과학관의 우수한 전시콘텐츠를 발굴하여 과학문화 확산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창의적 과학체험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과학체험전시 프로젝트다.

이번 과학콘서트 전국 투어에서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과학관의 '스타 소장품'과 신규 제작한 '체험형 전시품' 등 다양한 레퍼토리들이 '과학이 만드는 하모니'라는 주제 아래 ▲첨단이야기 ▲해양이야기 ▲자연이야기 등 3가지 테마로 나뉘어 전시된다.

'스타 소장품'과 '체험형 전시품' 등 레퍼러리 다양

첨단이야기 테마관에서는 '첨단과학과 함께 떠나는 미래'란 소주제 아래 '세상을 바꾼 발명-소리와 영상'(국립중앙과학관) '미래의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국립중앙과학관)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스포츠'(부천로보파크) '나를 찾아 떠나는 로봇여행'(창공과학관) 등이 소개된다.

'신기한 바다 속 해양생물의 삶'이란 소주제 아래 펼쳐지는 해양이야기 테마관은 '바다의 지배자 상어와의 만남'(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과거의 지배자 에라모사우루스의 죽음'(포디수리과학창의 연구소)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전남해양수산과학관) '투구새우와의 대화'(인천교육과학연구원) '진귀한 바닷속 친구들의 재회'(수산과학관) 등을 준비했다.

자연이야기는 '자연과 더불어 가는 삶'이란 소주제로 '화석 속 잃어버린 친구들'(계룡산자연사박물관) '생활 속 화학 친구'(포디수리과학창의 연구소) '고마워요! 동애등에'(충주자연생태체험관) 등으로 꾸며졌다.

이번에 전시되는 내용은 대부분 관람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 보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로봇 축구' '초상화 그려주는 화가로봇' '동애등애 화분만들기' '플러렌 분자모형 만들기', 그리고 '가상현실 트릭아트 기법을 활용한 포토존에서 추억 만들기' 등 참신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 밖 창의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전시물 탐구학습서'를 개발해 전시장에 비치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과학전시 스토리텔링대회'를 개최하며 과학해설사가 들려주는 '과학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특별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학문화의 전국 확산과 청소년의 창의체험 지원을 위해 이번 과학콘서트 전국투어에 대해 별도의 특별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G

글·박경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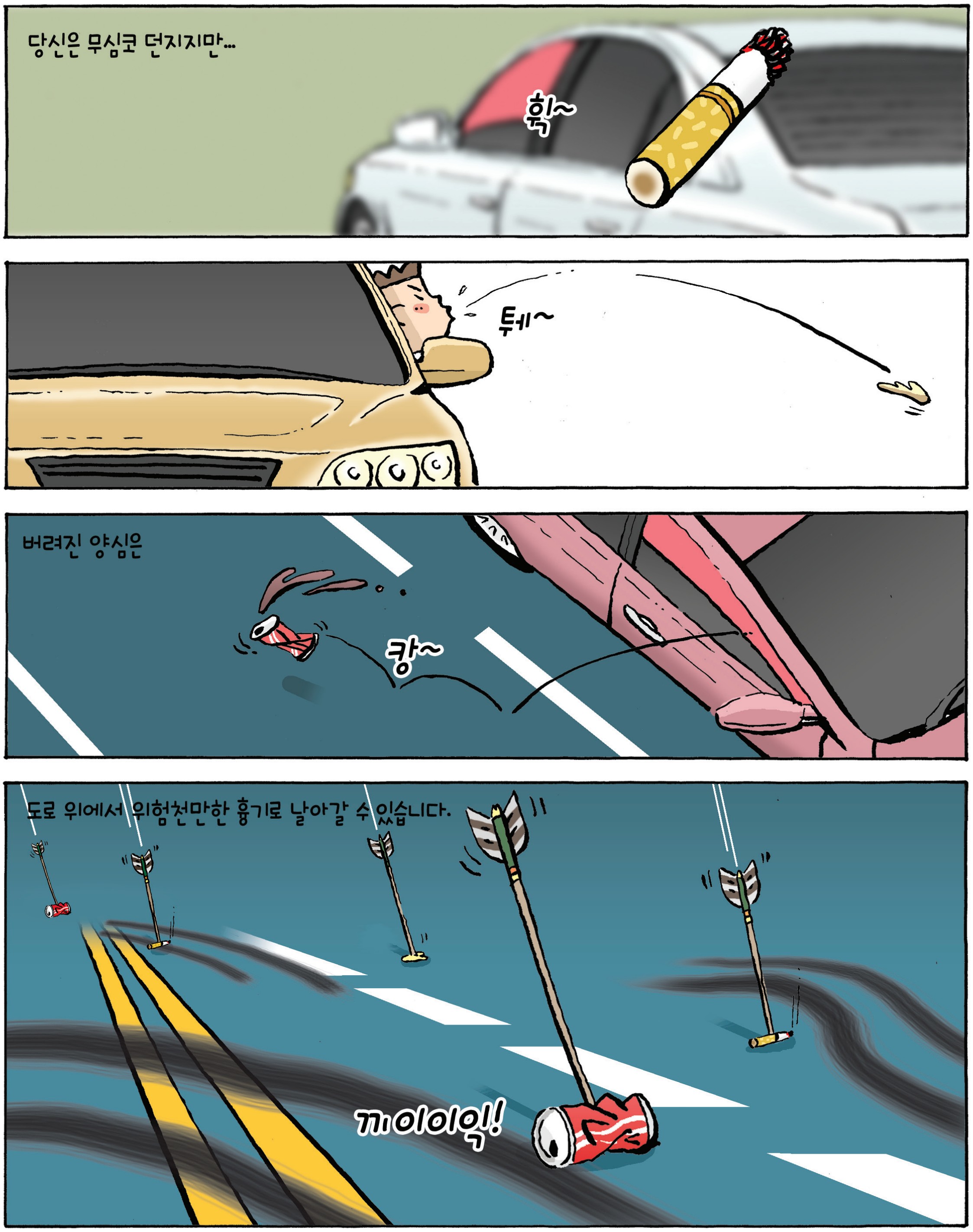
문의·국립중앙과학관 www.science.go.kr ☎042-601-7894

과학콘서트 전국투어 전시 일정과 장소

지역	날자	장소	홈페이지
대전	6월10~26일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	www.science.go.kr
서울	7월 7~28일	도봉구청 아뜨리움	www.dobong.go.kr
대구	8월 10~15일	엑스코	www.kofac.or.kr
전남 고흥	8월 18~29일	고흥동초 봉황관	www.ghed.go.kr
충남 서산	9월 2~25일	충남서부평생학습관	www.csbl.or.kr
강원 태백	9월 30일~10월 16일	태백고생대자연사 박물관 특별전시장	www.paleozoic.go.kr
울산	10월 21일~11월 6일	울산과학관 특별전시장	www.us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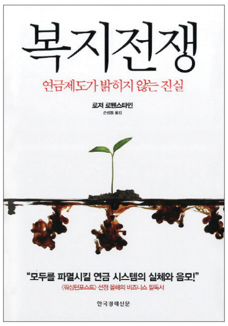
버려진 양심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무단투기는 안돼요!

〈복지전쟁〉
GM · 뉴욕시 공통점은?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로저 로웬스타인의 〈복지전쟁〉(원제·While America Aged)은 3개의 사례를 다룬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GM, 뉴욕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시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과도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연금시스템은 당장의 불편함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본성의 희생양이 되었다. (중략) 연금의 지급은 먼훗날의 일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용주들은 과도한 약속의 유혹에 넘어갔다. 마침내 연금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나 이외의 다른 납세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들일 수도 있다. 물론 GM이나 뉴욕, 샌디에이고의 퇴직연금제도가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사용자'의 상대자였던 전미자동차노동조합, 전미운수노동조합 등 공공노조, 공무원노조의 책임도 컸다. 저자의 말처럼, 미국 퇴직연금의 역사는 서서히 힘을 키워온 노동조합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도한 복지로 파산 위기에 빠져

2000년대 중반 GM의 퇴직연금기금은 매년 70억 달러를 먹어치우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2005년 GM이 건강보험에 지출한 돈은 53억 달러에 달했다. GM은 1백10만명에게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중 현역 근로자는 14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퇴직자와 그 가족이었다. GM이 생산하는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건강보험 비용은 1천5백25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도요타가 자동차 한 대에서 얻는 이윤에 맞먹는 액수였다. 월스트리트에서는 GM을 '바퀴 달린 연금회사'라고 조롱했다.

미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GM이 이 정도였으니, 뉴욕이나 샌디에이고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더욱이 뉴욕과 샌디에이고시 당국이 상대해야 하는 공공노조나 공무원노조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은퇴자위원회는 단순한 노조가 아니었다. 그들은 해당 지자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유권자집단이자, 거대한 압력단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선거인단에 잘 보이기 위해 부채를 미래로 미루는 악습은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면서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은 후회하기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G

글 · 배진영 기자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사 펴냄 · 1만9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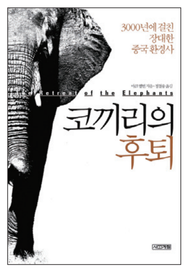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
최두찬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2만원



조선 후기의 학자 최두찬이 일행 50명과 함께한 16일간의 표류 체험과 중국 강남에 닿은 뒤 귀환에 이르는 6개월간의 중국 견문 기록을 담았다. 최두찬이 제주도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을 비롯해 일행 50명과 16일간 바다를 표류하는 어려운 상황,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풍속과 산천 명승, 강남에 대한 풍부한 물산과 화려한 의복, 건축물까지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실었다. 지식인들 간에 필담으로 오간 시구들도 흥미롭다.

코끼리의 후퇴
마크 엘빈 지음 | 사계절 펴냄·4만8천원



중국 고대 상(商)왕조부터 20세기 초 청(淸)왕조에 이르는 3천 년 중국사를 '환경사'라는 틀로 분석한 역작이다. 자연을 대하는 중국인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고 이것이 어떤 자연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재구성했다. 황실의 공식 사료부터 두보의 시편까지 다양한 자료를 오가며 다차원적으로 중국 환경사를 그려낸 점이 돋보인다.

내 마음의 야생화 여행
송기엽·이유미 지음 | 진선Books 펴냄·1만3천8백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봄이 시작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야생화의 생태와 이야기를 열두 달로 나누어 한데 묶었다. 사진작가인 송기엽씨가 생생한 꽃 사진을 찍었고 국립수목원에서 일하는 이유미씨는 꽃마다 수필 같은 설명을 달았다. 꽃말과 함께 저자의 추억도 글에 녹아 있다. 7월에 볼 수 있는 야생화로는 울릉도의 섬초롱꽃이 소개돼 있다.

99도의 물

글과 그림 · 최영순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비록 아홉 길을 팠다 해도
샘물이 나오는 데까지 미치지 못 한다면 우물을 파지 않은 것과 같다. – 맹자

사랑과 결혼… "어쩜, 꼭 내 이야기네 ㅋㅋ"

로맨틱 뮤지컬 〈아이 러브 유〉

현재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상태인 커플이 보면 좋다. 아니, 아직 제짝을 찾지 못한 외로운 싱글이 봐도 즐겁다. 로맨틱 뮤지컬 〈아이 러브 유〉(원제 I Love You, You're Perfect, Now Change)는 누가 봐도 연거푸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 마력이 있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웃다 보면 어느새 가슴 한편 묵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니까.

2004년 한국 초연 이래 흥행하며 롱런하는 이유다. 오프 브로드웨이의 히트 제조기인 극작가 조 디피에트로와 작곡가 지미 로버츠의 작품이다. 2001년 9·11테러 당시 대다수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막을 내리고 브로드웨이에서조차 관객 감소를 견디지 못해 간판을 내리는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연일 관객을 불러모은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무대가 열리면 몹시 바쁜 직장인 남녀가 첫 만남을 갖는 장면이 나온다.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라 낭비할 시간도 인내심도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두번째 데이트로 넘어가죠?" 그러자 남자는 "두번째도 생략하고 세번째 데이트는 어떠냐"고 묻는다. 이는 다시 첫번째 섹스로, 두달째의 만남으로, 다툼과 화해, 헤어짐과 재회 장면으로 이어진다.

19개의 짤막한 에피소드 담은 옴니버스

이처럼 뮤지컬 〈아이 러브 유〉는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19개의 짤막한 에피소드에 담아 옴니버스 형태로 보여준다. 소개팅 자리에서 동상이몽에 빠진 남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육아 등 일상에 지친 30대 부부, 배우자와 사별한 후 새로운 사랑에 빠지는 노년 커플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스테디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뮤지컬 버전

장소	날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월 17~18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6월 25~26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7월 2~3일



조선DB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잘 그려낸 뮤지컬 〈아이 러브 유〉는 2004년 한국 초연 이후 지속적으로 관객을 모으고 있는 수작이다.

이라고 할 만큼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심리,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심리도 잘 묘사돼 있다. 가령 '여자는 내숭, 남자는 뻥' 편에서는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를 즐기는 남자와 이런 남자가 못마땅해도 머슴 하나 필요한 여자의 심리가 묘사되고, '패밀리 드라이브' 편에선 집에서 전혀 기를 못 펴던 남편이 유일하게 운전할 때만은 숨겨져 있던 야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재현된다.

총 60개가 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를 연기하는 배우는 모두 4명. 초연부터 출연해 단일공연 단일배역 최다 출연기록을 세운 남경주를 비롯해 한애리, 이민아가 2시간의 공연 동안 쉴 틈 없이 분장과 옷을 바꿔 가며 수많은 캐릭터를 쉴 새 없이 넘나든다.

5초 만에 다른 캐릭터로 무대에 나타나는 배우들의 변신, 그리고 이들이 노골적인 대사와 노래, 보디랭귀지를 곁들여 보여주는 사랑의 여러 형태가 관객을 무장해제시킨다. 그런 가운데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한번 관람하기를 강추한다. G

글 · 박주연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연극 **산불**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차범석의 〈산불〉이 원로 연출가 임영웅의 연출로 다시 상연된다. 〈산불〉은 6·25 당시 공비가 출몰하는 외딴 두메산골을 무대로 늙은 시어머니와 청상인 며느리와 딸, 그리고 그 집에 숨어든 빨치산이 펼치는 애욕과 갈등의 드라마. 강부자·조민기 등 연기파 배우들이 정통 연극의 깊이를 보여준다. 전쟁 후 피폐해진 소백산맥의 부락과 대나무 숲, 불타는 산 등 희곡 〈산불〉이 가진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사실적인 무대 메커니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일시 6월 5~26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02-577-1987

콘서트 **2011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66년 전통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온다. 바흐의 음악에 대한 독특한 해석으로 '최고의 바흐 연주'라는 극찬을 듣는 슈트르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을 연주한다. 2004년 독일 ARD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의 플루티스트 마갈리 모시니어가 협연한다.



일시 6월 20일 **장소**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070-4130-0877



클래식 **〈畵手 조영남, 회화 45년-자유로운 영혼의 반항아 일기〉 展** 조영남은 화가다. 그리고 가수다. 그래서 그는 화수(畵手)다. 독학으로 대학 2학년 세시봉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조영남은 그동안 요강, 소쿠리, 바둑, 화투 등 어린 시절부터 흔히 접하던 서민적 소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왔다. 6월 17일 오후 3시 개막행사에서는 조영남의 즉흥 피아노연주 및 사인회가 함께 열린다.

일시 6월 14일~7월 31일 **장소**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문의** 062-613-7100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피아프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6월 18~19일	061-270-8100, 8488
젊음의 행진	유니버설아트센터	6월 26일까지	02-738-8289
신의 아그네스	부산AN아트홀.Red	7월 17일까지	1566-5490
지킬앤하이드	샤롯데씨어터	8월 15일까지	1588-5212
연극			
코믹쇼 로미오&줄리엣 시즌2	대학로 소리아트홀1관	10월 16일까지	02-766-2022
늙은 도둑 이야기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 차이무 극장	6월 30일까지	02-762-0010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주년 공연	유시어터(청담동)	8월 28일까지	02-556-5910
옥탑방고양이	SM틴틴홀	오픈런	02-764-8760
콘서트			
남진 데뷔 45주년 콘서트 님과함께 45년 - 전주	전북대삼성문화회관	6월 18일	1644-1123
컬투쇼 대학로 소극장공연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1	7월 3일	1544-4997
이은미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7월 9일	031-8018-5200
클래식			
조지윈스턴 솔로피아노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30일	02-548-4480
코리안심포니 제174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21일	02-523-6258
무용			
춤	국립국악원 예악당	6월 19일	02-3011-1720~1
대한민국발레축제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월 18일	02-587-6183
프리미엄 런치콘서트 〈자미(滋味)〉	삼청각 프리미엄 상설공연	6월 29일까지	02-765-3700

6월 둘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29일~6월 4일

곡명	가수
1 천일동안	옥주현
2 내 손을 잡아	아이유
3 나와 같다면	김연우
4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5 Lonely	2NE1
6 Fiction	비스트
7 Hello Hello	F.T Island
8 보통	백지영
9 네버 엔딩 스토리	김범수
10 별빛 달빛	시크릿(Secret)



지난 6월 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샤를르드골공항은 동방신기와 샤이니, 에프엑스 등 한류스타를 맞이하기 위한 현지 한류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파리를 열광시킨 한류

이제 신나게 잘 노는 법을 수출하자

'문화와 예술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법학이나 의학처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문화와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 가진 힘이다. 그래서 무섭다.

파리의 중심가에 한류(韓流)가 범람했다. 프랑스의 청년들이 한국 음악을 틀어 놓고 거리에서 춤을 췄다. 자발적 이벤트였다. 문화대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한국어 가사에 맞춰,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의 댄스를 따라하며 집단적으로 몸을 흔드는 군중을 보고 세계가 깜짝 놀랐다. 청년들의 요구사항도 명확했다. "왜 한류 공연을 한 번밖에 하지 않느냐, 공연 횟수를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마음 따라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문화·예술의 힘

지난 6월8일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 공연차 동방신기·샤이니·f(x)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이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몰려든 1500여명의 한류 팬들이 공항에 운집해 환호했다.

예술과 문화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변방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이야기'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한국어는 소수언어였다. 세계시장에서 보편성이 없었다. 한(恨)의 미학(美學)은 그윽하지만 반복적으로 즐겨 소비되는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한류다.

무엇보다도, 한류는 흥(興)의 문화를 새로 썼다. 슬픔보다는 즐거움이 더 대중적이다. 확장성이 무한대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세계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노래'로 언어의 장벽을 돌파하되 의성어·의태어를 집어넣어 '가사의 뜻'을 몰라도 리듬감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외국어 가사를 도입해 시장친밀도를 높였다. 배타성을 버리고 아예 제작초기에 다국적 예술가를 참여시켜 현지화를 완성한 것이다.

한류는 또 모든 예술품의 생산제조 과정을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극대화하도록 동기부여에 성공했다.

한류의 범람 다음은 시스템 자체의 수출이다. 신나게 잘 노는 법을 수출해 먹고사는 일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인들의 마음속으로 달콤한 꿈처럼 기분좋게 스며드는 중이다. G

글 · 장원재 (경기파주영어마을 사무총장)

·이벤트기간 6월13일(월) ~ 6월27일(월) ·당첨자발표 6월28일(화)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오픈 2주년 기념 EVENT!

이벤트하나

문화 강연 투표 이벤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를 통해 여러분과 인사한 문화,체육,관광의 별들 중 문화 강연회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에게 투표해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시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된 셀럽의 문화 강연회는 7월 중 진행 될 예정입니다.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와 함께한 별★들!



사진작가 오중석



뮤지컬배우 최성희



홍보전문가 서경덕



이만기 교수



디자이너 이상봉

이벤트 둘

블로거 미션 이벤트!

SBS 드라마 <내게 거짓말을 해봐> 속 장면을 캡쳐해서 상황에 맞게 문화놀이터 콘텐츠와 관련된 재치 있는 글을 만들어 주세요.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말풍선 문구와 함께 포스팅 한 후 URL을 남기면 미션 완료!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도란도란 문화놀이터를 방문해주세요!

http://culturenori.tistory.com

60년 만에 …
죽어서 다시 만난 호국의 형제

이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1950년 9월
홀어머니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한달 전 입대한 형님을 따라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입대한 18세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낙동강, 서울수복작전에 이어 북진의 대열에 서서
평양탈환작전에 함께 참전했지만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화랑무공훈장을 남기고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가 전쟁터를 따라 이동한 거리는 무려 3,400여Km.
그리움과 고통의 대장정을 헤쳐나가면서도 결국 만나지 못한 채
60년이 지난 후에야 동생이 유해로 발굴되면서
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형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사랑의 표상! 이들 형제의 호국정신은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입니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직접매장, 목격, 들은 사실)
-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전국보건소)
- 문의 1577-5625 (오! 6·25)



대한민국 국방부
www.mnd.go.kr